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999-14



2022 제17회 한국농촌 건축대전 수상작품집

17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2022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건축학회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2022 제17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7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2022

CONTENTS



1. 공모소개 05

2. 공모요강 07

주제 / 전시 / 시상

3. 공모전 대상지 정보 11

4. 심사평 17

5. 수상작품 28

대상 / 우수상 / 장려상

6. 진행과정 77

갤러리 / 포스터



2022 제17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7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2022

1. 공모소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건축 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한국농촌 건축대전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쇠퇴해가는 농촌 버스 정류장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시설 기능을 넘어서서 농촌 지역 내 기초 생활시설 (문화, 복지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담을 수 있는 지역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촌 버스정류장(터미널) 지역 거점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공간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건축적인 아이디어로 풀어 가기 위한 시도를 해온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해 농촌과 농촌건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공모요강

농촌 지역은 70~8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현재까지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 청·장년기 농촌을 떠나 일자리가 집중되는 도시로의 이주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 일자리 부족 및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 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촌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지역 경제여건이 취약해져 점차 지방 소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거리'보다는 '관계'가 중요 시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며 건강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수요 증가와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농촌에 다양한 계층이 유입되고 있으나, 생활 SOC 인프라 부족과 노후화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화 요구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보완이 중요한 과제이다.

농촌의 버스정류장은 지역의 관문인 동시에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곳이다. 9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던 버스정류장이 9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함께 자가용이 증가하고 저 출산과 신도시로 이주하는 이농 현상에 의한 인구감소로 이용객이 감소하였다. 현재까지 영업은 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으며 그중에는 폐업한 곳도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버스정류장 주변 상권이 위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 쇠퇴하는 농촌 버스정류장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농촌 지역 내 기초 생활시설(문화, 복지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담을 수 있는 지역거점공간으로 기능을 보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고자 한다.

공모 주제

농촌 버스정류장(터미널) 지역거점 공간 만들기

쇠퇴하는 농촌 버스정류장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시설 기능을 넘어선 농촌 지역 내 기초 생활시설(문화, 복지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조성

공모 목적

농촌지역(읍면)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해 학생들(일반인 포함)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한국농촌건축대전 추진을 통하여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공모 취지

- 농촌지역(읍면)의 건축 및 공간 조성에 대해 학생들(일반인 포함)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한국농촌건축대전 추진을 통하여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주최 및 주관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촌건축학회

운영위원

성명	소속	비고
김흥기	동명대학교	운영위원장
남윤철	중부대학교	
노준석	원광대학교	
서인국	한국농어촌공사	
주용선	건축도시디자인연구소 AUDRA	
한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대상지

전북 익산

시설명	여산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주소	전북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450-8 외 2		

전북 임실

시설명	임실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주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30-3		

전북 임실

시설명	관촌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주소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352		

경남 김해

시설명	진영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11-1 외 1		

경남 함양

시설명	마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주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300-2 외 6		

공모 자격

건축과 농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

-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구성
- 개인 또는 팀당 1개 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함
- 참가 신청 시 제출된 팀원은 변경할 수 없음

심사위원

남해경 | 심사위원장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학래 |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홍배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박헌춘 | 사회적기업 (주)에코메아리 대표

백봉순 |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대표

공모 일정

구분	일정	주요사항
참가 신청 접수	05월 30 (월) ~ 07월 08일 (금) 18:00까지	홈페이지 접수
1차 작품 접수	07월 04일 (월) ~ 07월 08일 (금) 18:00까지	홈페이지 접수
1차 심사	07월 13일 (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2차 작품 접수	08월 01일 (월) ~ 08월 05일 (금) 18:00까지	1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하여 접수 (패널 : 홈페이지, 모형: 방문) 08월 06일 ~ 08월 15일 (표절오라인공개검증)
2차 심사	08월 18일 (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
3차 작품 접수	08월 26일 (금)	2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
3차 심사	08월 26일 (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최종 결과 발표	09월 01일 (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전시회	09월 27일 (화) ~ 10월 03일 (월)	서울매트로미술관 제1전시관
시상식	전시기간 중 1일	서울매트로미술관 제1전시관

시상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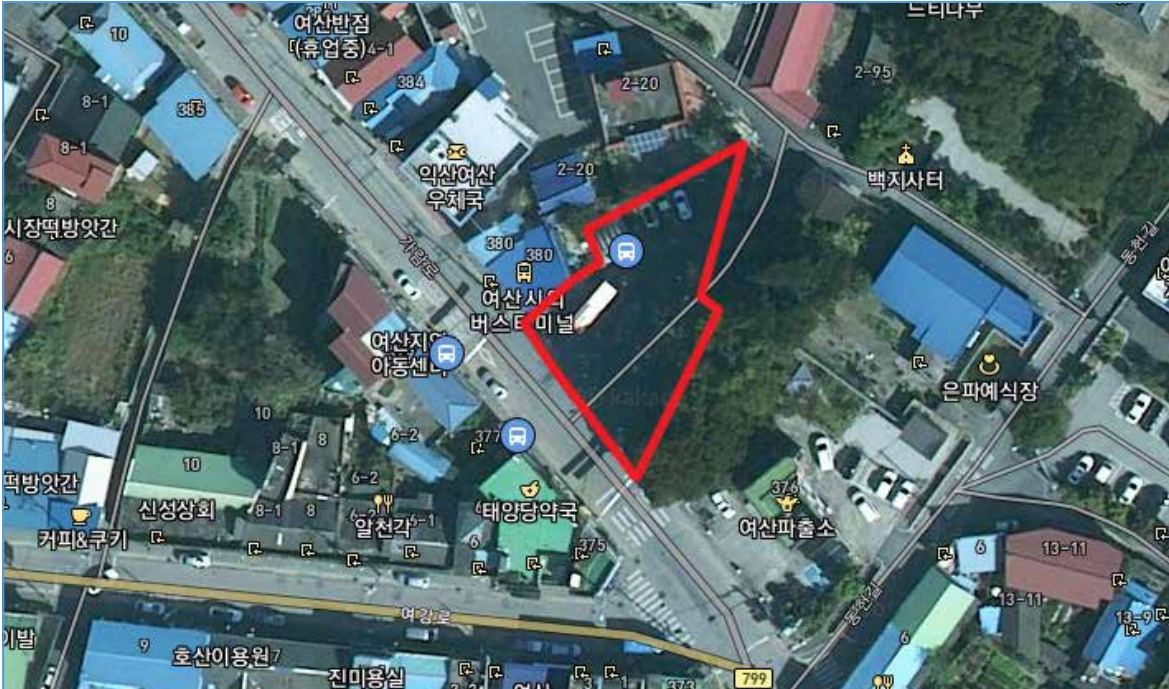
구분	수량	상장	상금
대상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	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장려상	4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
입선	다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기념품

3.

공모전 대상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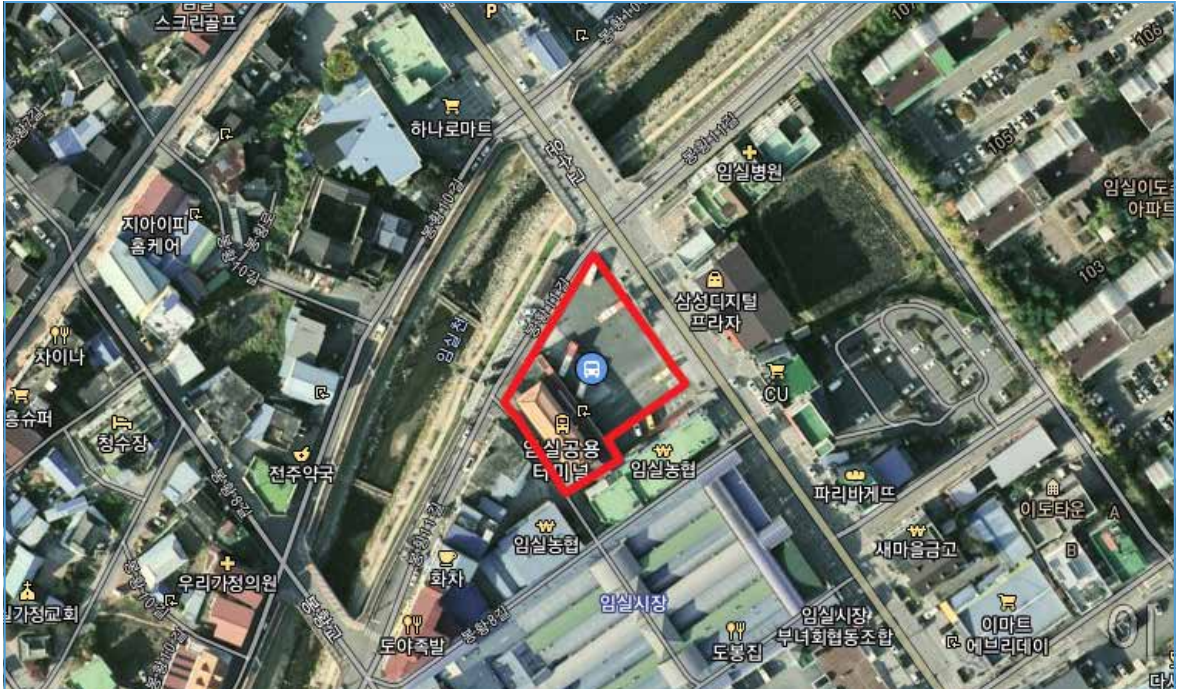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구 분	내 용		
대상지 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해 당 지 번	전북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450-8 외 2필지		
지 역 지 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대 지 면 적	788㎡	450 - 8대 449 - 4대 449 - 5잡	481 ㎡ 54 ㎡ 253 ㎡
기 존 시 설	없 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구 분	내 용		
대상지 지역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해 당 지 번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0		
지 역 지 구	일반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대 지 면 적	1,882㎡	230 - 3잡	1,882㎡
기 존 시 설 (건축물대장)	층수 및 구조	2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면적	건축면적	109.45㎡
		연 면 적	218.9㎡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구 분	내 용		
대상지 지역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해당 도로명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로 32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대지면적	2,126㎡	352차	2,126㎡
기 존 시 설 (건축물대장)	동수	4동 (대합실, 점포, 사무실 등)	
	층수 및 구조	1층 (블럭조1동,벽돌조1동) 2층 (블럭조 1동, 철근콘크리트조 1동)	
	시설면적	건축면적	813.38㎡
		연 면 적	1,049.0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구 분	내 용		
대상지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해당 도로명	경상남도 진영로 215		
지역 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대지면적	776㎡	711 - 1대	393 ㎡
		711 - 34대	383 ㎡
기 존 시 설 (건축물대장)	층수 및 구조	2층 / 경량조립식구조	
		시설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329.22㎡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구 분	내 용		
대상지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해 당 지 번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98 외 5필지		
지 역 지 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		
대 지 면 적	788㎡	298 차	1,219㎡
		299 차	913㎡
		300-2차	919㎡
		301-6차	487㎡
		587-3차	210㎡
		588-2차	225㎡

4.

심사평

심사위원

- 남해경 | 심사위원장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김학래 |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김홍배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 박헌춘 | 사회적기업 ㈜에코메아리 대표
- 백봉순 |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대표

남해경

심사위원장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22년에 개최된 제17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여산, 임실군의 임실·관촌, 경남 김해시의 진영, 함양군의 마천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촌마을 읍면의 노후화된 버스정류장이나 기타 노후화된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이었다. 참가한 총 56개 작품 중에서 1차 심사에서 39팀이 선정되었고 2차 심사에서 7작품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 심사에서 7개 작품을 대상으로 대면 발표와 토론을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을 결정하였다.

1차 심사에서 선정된 39개 작품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도의 작품 수준을 고루 갖추었으며, 대상지에 고루 분포되어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심사과정에서도 작품별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제를 도입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평가 기준은 '설계 개념 및 방향의 타당성, 건축 및 공간계획의 적절성, 건축 및 공간계획의 창의성, 계획 실현의 가능성, 그리고 발표력'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7개의 작품이 여러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는데 대상지별로는 관촌 4작품, 여산 2작품, 마천 1작품이 선정되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7개의 작품은 각각의 항목별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최종적인 우열을 가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는 버스 정류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귀농인이 만나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버스 정류장에 소농인을 위한 작업장, 지원센터, 노인 건강 센터 등을 계획하였으며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텃밭, 전망지, 정원 등을 계획하였다.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본 작품은 계획안을 만들기 위하여 주변 지역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사하고 이를 분석한 다음 지역주민의 장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노인시설 등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버스 정류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고 주변 지역을 연계한 점, 유휴공간을 활용한 점은 매우 좋아 보인다. 단지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과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2022년도 제17회 농촌건축대전은 전체적으로 농촌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의 내용이나 유휴시설을 재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학 교육의 정착되면서 설계교육도 향상되어 기존 시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대상작을 포함한 우수상을 받은 작품들은 프로그램의 이해뿐만이 아닌 농촌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 및 재료의 선정에서도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과도한 디자인과 재료 선정보다는 농촌경관을 고려한 절제되고 순수한 형태를 지양한 점, 페켄테이너 박스, 유휴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점도 좋았다.

단지 일부 작품의 경우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테크닉이나 시사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 학생 작품으로서 기본기에 충실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건축적인 측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야 하는데 아직도 종합능력이 부족한 아쉬운 점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작품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건축학도와 작품이 우리나라의 농촌경관을 반영한 우수한 설계안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건축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농촌건축대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사람들과 건축에 대하여 고민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남해경

심사위원장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멈춤에서 마무리로

‘멈춤에서 마무리로’는 경남 함양의 마천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폐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공용 시설과 외부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한 작품이다.

지역을 전체적인 도시 차원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이를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여 조형적인 점까지 고려한 점은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 하우스와 택시, 버스 기사 휴게실을 계획한 점은 버스 정류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반영한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단지 학생 작품으로서 한계이기는 하지만 게스트 하우스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관적인 측면에서 컨테이너 박스의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관한 치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의 문

‘[]의 문’은 전북 임실 관촌의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버스 정류장의 기능인 지역의 문을 내일을 향한 관문으로 해석하고 이를 작품화하였다. 버스 정류장을 통하여 거주자를 위한 기대효과와 외부인을 위한 기대효과를 동시에 추구하자 한 우수한 작품이다.

작품의 컨셉을 반영하여 마을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이를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조사하여 다목적 홀, 농업체험관, 도서 공간 등으로 계획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반영하면서 조형적인 면까지 고려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점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 구성이나 입면계획에 반영한 점, 친환경 건축계획도 우수해 보인다. 단지 현지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좋으나 버스 정류장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에 관한 치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관촌으로 오람가람

‘관촌으로 오람가람’은 관촌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귀농·귀촌인들의 배움터를 계획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현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내용을 작품에 잘 반영한 우수한 작품이다. 특히 이용 빈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버스 정류장을 마을의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점도 좋았다. 단지 본 대지와 주제가 버스 정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교통상황을 고려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면서 미래의 농촌 지역 버스 정류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다.

남해경

심사위원장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온ON 마을에 꿀 떨어지네

‘온ON 마을에 꿀 떨어지네’는 경남 마천의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주 생산품인 꿀을 연결고리로 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 작품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을 매개체로 하여 외지인과 연결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한 점은 좋아 보였다.

마을의 주 산업인 양봉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변 마을의 현황까지도 상세하게 분석한 다음 작품에 반영시킨 점은 우수하였다. 특히 노후 버스 정류장으로 마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한 점이나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6차 산업으로 발전 시키고자 한 점이 좋았다. 이를 반영하여 건축계획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지역의 주 생산품인 꿀을 이용한 판매장, 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공유 공간을 형성한 점은 특히 좋았다. 단지 학생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점이겠지만 실질적인 차량의 이동, 주차 등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

커넥션:線(선)

‘커넥션’은 전북 임실 관촌의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지역의 거점시설을 연계하여 마을의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변 마을과의 관계를 전부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이를 작품에 반영한 점은 매우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버스 정류장의 기능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인 신문고 서비스라든지 도서실, 운동실 등을 계획하고 외부에서 오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층에 전용 공간을 조성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버스 정류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과 조사한 내용을 담아 기존의 건물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였으면 더욱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여산면, 기회의 전환점이 되다

‘여산면, 기회의 전환점이 되다’는 전북 여산의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줄어든 버스 노선으로 인한 유휴 버스 정류장을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과 가고 싶은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오늘날의 농촌마을버스 정류장을 해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우수한 작품이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유휴시설과 공간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연계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한 건축계획도 좋아 보인다. 특히 버스 정류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교통의 순환을 고려한 점이나 특산물 판매소, 자전거 보관소 등은 실질적인 계획안으로 좋아 보인다. 단지 조사한 마을 주변의 유휴시설을 작품과 연계하여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김학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농촌 지역 버스정류장’으로 농촌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을 제시하고 지역 공동체 거점 역할 및 배후 마을과 연계된 프로그램 교류 및 공유시설을 제안하는 다소 어려운 주제였지만, 농촌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버스정류장에 공유시설을 배치하는 안을 각각 제시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

기존의 버스정류장을 기모델링하여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변환하고 기존 버스정류장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정원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기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이다.

멈춤에서 머무름으로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이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버스정류장을 관광객들의 숙박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 계획이다. 버스정류장의 중정과 숙박공간의 중정을 분리하여 계획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시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작품이다.

[]의 문

기존 버스정류장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중정으로 계획하여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계획안이다. 다만, 버스정류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살리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안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촌으로 오람가람

기존의 농촌마을에 부족한 시설을 버스정류장에 모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한 작품이다. 그러나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버스정류장 건물의 배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가로의 연속성을 배제한 점이 아쉬운 계획이다.

온ON 마을에 꿀 떨어지네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특산품인 꿀을 주제로 계획을 시도하였으며,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한 작품이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꿀이라는 단 하나의 특산품만을 내세워 지역의 다른 특성들을 배제한 채 계획을 한 점이 아쉬운 작품이다.

커넥:線(선)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커뮤니티 어울림마당을 건물의 사이에 배치하며, 주차장을 후면에 배치하여 차량 동선을 재배치하는 등 기존 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작품이다. 그러나 배후 마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의 제안과 디자인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

여산면, 기회의 전환점이 되다

좁은 대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들을 복층으로 배치하여 고밀도 주민 편의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건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존 버스정류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기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 외 시설들을 계획하는데 급급한 계획안이 되었다.

김홍배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제17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 버스정류장(터미널)을 활용한 지역거점 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로 쇠퇴해가는 농촌의 버스정류장을 활용 농촌지역 내 문화 복지시설 등을 담아 지역거점공간의 위상 정립, 주민의 삶의 질 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

임실의 버스 정류장을 거점으로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정류소를 제안하고 있는 점, 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콘셉트와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SPACE PROGRAM을 비교적 현실적 반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멈춤에서 머무름으로

'멈춤에서 머무름'이란 주제로 주민과 관광객, 청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공유 공간을 통해 배후지역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구성상 게스트하우스의 적용 및 배치의 합목적성과, 지나치게 혼재된 공간구성 프로그램에 의한 주제의 모호성, 지형적 레벨을 활용한 입체적인 배치 및 공간구성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 문

대문과 관문을 키워드로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 정리가 돋보이는 점, 버스터미널과 복합공간(문화, 복지 서비스) 공간을 구성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 등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 판단됩니다.

관촌으로 오람가람

이 작품은 관촌의 단절된 공간을 '길'이라는 모티브를 활용, 서로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하려 시도한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의 문제점인 침체된 거리의 상권, 마을 내 인프라 간의 연계성 부족, 강으로 나뉜 공간 통합, 공간구성의 입체성 부족 등 실제 공간구성에 어떻게 구체화하여 적용하였는지의 부재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홍배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온ON 마을에
꿀 떨어지네**

함양의 향토자원이 '꿀'을 소재로 주민, 청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의 거점 터미널을 활용,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공동체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 조사 분석한 내용과 개념이 건축 결과물로 나타나기까지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표현 등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주요 용도가 터미널인 점을 고려할 때 터미널이 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점, 배치와 평면도만을 제시하고 있고 단면, 복층 평면 등이 누락된 점 등은 아쉽게 판단됩니다.

커넥:線(선)

'커넥션(연결)'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농촌문제에 적용하여 새로운 논리적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풀어가고자 한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방대한 분석 내용에 비해 실제 건축적 반영 내용이 부족한 점,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관촌 지역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농촌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이 아쉽게 판단됩니다.

**여산면,
기회의 전환점이 되다**

이 작품은 마을 속에 마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연결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콘셉트를 건축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의 완성도가 높지 않고 외부공간에 대한 해석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춘

사회적기업 ㈜에코메아리 대표

2022년 17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주제는 '농촌 버스정류장(터미널)을 활용한 지역거점 공간 만들기'로 도시의 기능을 가진 농촌공간을 건축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버스정류장은 지역의 관문으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나, 경제규모 성장, 편의성 추구 등 사회 변화로 인해 쇠퇴가 심화되고 있고 낙후된 시설의 방치는 지역 관문의 훼손, 주민불편 가중, 상권 위축 등으로 이어져 지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용자 감소 등으로 쇠퇴를 극복하기 어려운 농촌 버스정류장을 지역의 거점공간, 특히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공간, 미래 거주자를 확보하는 초석이 되는 공간,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건축대전 참가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참가자들이 조형적인 건축의미를 발현함에 있어 최근 유행하는 패턴을 지나치게 수용하여 여러 작품에서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 요소가 나타난 점, 거점 기능 부여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버스정류장의 본연의 기능(이용객 승하차, 차량 진출입, 차량 정차 등)이 계획에서 소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

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임실군 관촌면을 대상지로 선정, 임실치즈 캐릭터 '피치', 오수의 견 캐릭터 '워리', 사선대 시설관리 할아버지, 술치리 귀농인 아저씨, 관촌 파출소 경위, 상원리 할머니를 캐릭터로 재구성하여 관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공간과 기능으로 담고자 한 점이 흥미롭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버스 승하차 플랫폼과 12M 도로 사이에 조성한 '모두의 텃밭'이 차량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부 공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멈춤에서 머무름으로

함양군 마천면을 대상지로 선정, 마천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상지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페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친환경 계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해 기능을 부여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대상지 내 게스트하우스 계획은 당위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외부 공간에 대한 해석과 표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 의 문

임실군 관촌면을 대상지로 선정, 사이트 분석, 매스 프로세스, 친환경 설계요소, 동선 및 무장애 디자인 등 건축계획적 측면에서의 논리적 전개와 작품성이 우수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수요 조사에 없이 구성된 공간에 대해 적합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농촌의 사회 변화와 현상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헌준

사회적기업 ㈜에코메아리 대표

관촌으로 오람가람

임실군 관촌면을 대상지로 선정, 버스정류장의 본연의 기능인 플랫폼,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와의 관계는 제출된 작품 중 가장 명확했다고 판단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문제점 분석이 자의적 해석(방문시 느낌)으로 이루어져 버스정류장 외에 거점 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구성에 있어 지역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온ON 마을에
꿀 떨어지네**

함양군 마천면을 대상지로 선정, 마천면 농특산업의 하나인 양봉을 주제로 6차 산업과 연계하여 주민과 마을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건축적 제안이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의 기능이 소외되어 있고 공간과 프로그램의 구성이 6차 산업 센터를 연상시키는 점은 지역에 대한 해석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커넥:線(선)

임실군 관촌면을 대상지로 선정, 시장길, 문화길, 사선길을 연결하여 터미널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제시한 시도가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공간의 구성이 지역 주민을 위한 거점시설보다는 귀농 귀촌 센터를 연상시키고 버스정류장의 기능이 소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산면,
기회의 전환점이 되다**

익산시 여산면을 대상지로 선정, 사이트 외에 여산면 중심지 전체의 자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미흡하고 특히 버스 진출입 동선을 설정함에 있어 8M 도로에서 버스가 진입 후 후진하여 진출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백봉순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대표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

- 농촌 버스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안했다.
- 특히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억등을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한 점은 참신하다고 평가한다.
- 가장 실현가능한 배치 및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공간, 동선, 입면 등이 기타 작품에 비해 탁월하다.

멈춤에서 머무름으로

- 농촌의 실질적 문제점과 주변 배후 잠재적 인프라에 대한 분석과 대지 현황이 갖고 있는 특성의 분석 등이 양호하다.
- 귀농인과 지역주민, 관광객 간의 다양한 소통 공간을 제시하였고 특히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는 제안한 점을 참신하다고 생각한다.
- 버스터미널의 기능을 고려한 배치 및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소 부족해 보이나 전체적으로 배치, 동선, 공간구성 등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에 부합하는 재료, 입면, 조형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의 문

- 관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였으나 실제 제안한 내용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웠다.
- 대지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해 보였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간 구성과 연계성은 우수하다.
- 버스터미널과 커뮤니티 시설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이용 편리성이 우수해 보이며 내외부 공간의 적절한 구성도 양호해 보인다.

관촌으로 오람가람

- 대상지에 대한 광역적 분석을 통해서 대상지의 문제점 도출을 사용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 단지 버스터미널을 통한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을 볼 때 장소나 시설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과 새롭게 들어설 시설에 대한 자료분석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버스터미널과 농촌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배치, 동선, 공간, 입면 등은 양호하나 시설 간 독립성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이 있다.

백봉순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대표

온ON 마을에
꿀 떨어지네

- 함양, 마천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여건을 꿀을 이용한 마을 활성화 및 버스터미널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한 점을 신선하게 바라보았다.
- 다소 아쉬운 점은 버스터미널의 기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꿀 산업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시설만은 강조하여 제안한 점은 아쉽게 생각된다.
- 제안한 프로그램 간의 배치, 동선, 연계성이 부족해 보인 점은 아쉬우나 공간구성, 입면 요소 등은 양호하다.

커넥:線(선)

- 대상지에 대한 광역적 분석을 통해서 대상지의 문제점 도출을 사용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한 점을 매우 우수하다.
- 단지 버스터미널을 통한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을 볼 때 장소나 시설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과 새롭게 들어설 시설에 대한 자료분석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되고 특히 버스터미널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 버스터미널과 농촌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배치는 다소 아쉬우나 동선, 공간, 입면 등은 양호하다.

여산면,
기회의 전환점이 되다

- 여산면 버스터미널과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산리 마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 하지만 버스터미널 및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상대적 부지가 협소하여 합리적인 배치나 기능 구성이 조화롭지 못하다.
- 주변 시설과 내외부 프로그램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공간구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5.

수상작품

대상 |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
남궁수연

우수상 | 멈춤에서 머무름으로
김도영, 한상렬, 정기흠

우수상 | []의 문
박지연, 정명수, 경우현

장려상 | 관촌으로 오람가람
강민서, 문인범, 신윤섭

장려상 | 온ON마을에 꿀 떨어지네
김경수, 민건영, 정준혁

장려상 | 커넥:線(선)
최지원, 류성호, 노성찬

장려상 | 여산면, 기회의 전환점이 되다
안수지, 김도협, 전은서

입선 |

너와 나의 연결고리 권동구, 김성렬, 양가영

2022 지금 우리 여산은 장희원, 김동연, 곽주환

CHANNEL BOX 이재희

관촌 이음표 권평강, 김태준, 박성훈

낭랑18세 이미르, 최하늘, 최재원

다시 이어지는 입실, 밝아지는 이도리

김다현, 현나금, 정호정

당홍 통합회관 터미널 강동욱

동백꽃 필 무렵 황우성, 백인호, 최윤제

만남이 만개하는 사랑채 최유정, 손지성, 전현민

삶, 쉽, 숲 강민영, 이혜지, 이선우

소통의 장 최경현

여지의 '거리' 김다정, 정상원

여행, 산책, 일상 박준표, 황보건, 전호완

오이소, 보이소, 하이소 홍영찬, 김태희, 이민태

이따 거기서 만나의 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현서, 고성수, 김민범

입실관촌문화터미널 이기수

입실은 만남을 싣고 조일묵, 박우형, 윤채영

진영으로 감 정수지, 심규리

진진짜라(JMT:진영 미디어 터미널)

윤경원, 박유민, 정효창

터미널 속 풀앗이 채한섭, 박민근

마천의 삶을 잇다 남기훈

마음은 공감, 공간은 교류 우리동네 거점공간

'우리 진영에서 살란다'

김지혜, 박은지, 김동혁

천안시 성환읍버스터미널 확장 신축안

유용우, 이한울, 현철우

다음 정류장은 여산입니다 정은별, 최유림

함께 살아볼양? 이채은, 박원준, 전도훈

Do More(도모) 오영종, 문수영

누정, 연류정 김하늘, 김형목

생기를 불어 넣어 동네의 잃어버린 감 찾기

김동규, 이승엽, 이승영

입실, 문화로 입실 김민서, 변희진, 송민아

사선복합환승센터 김선호, 남민준, 정가현

여산 두레 임은지, 윤성영

BEYOND THE BOUNDARY

모두가 만들어가는 무경계 지역거점

한연정, 김현우, 박지찬

대상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

서울사이버대학교 | 남궁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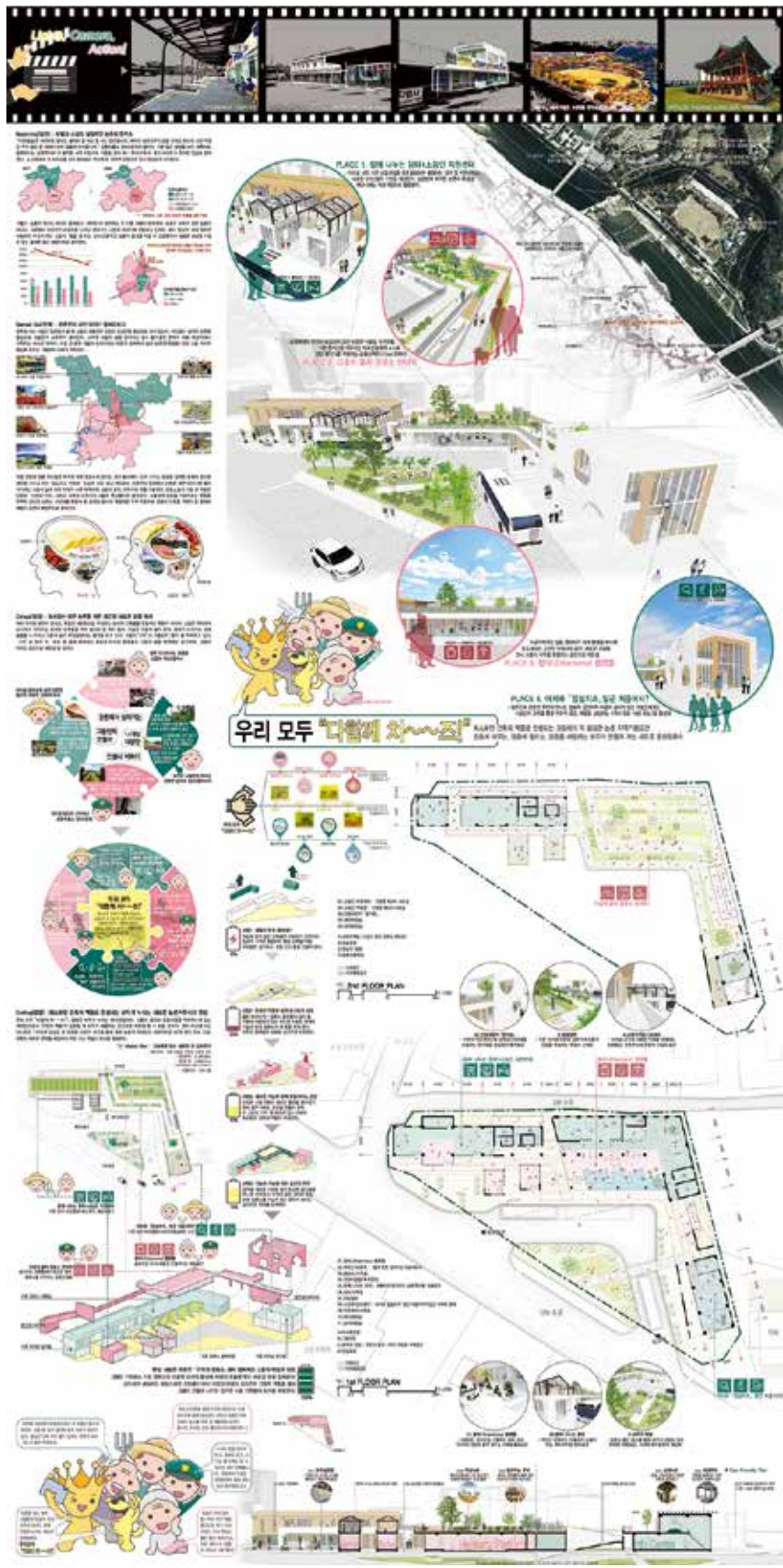


작품설명

"이곳(임실)만 하더라도 읍내는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양반입니다. 해마다 농촌인구가 급감한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은 우리 같은 먼 내 사람들에게 보다 힘들게 다가옵니다." 사이트 답사 도중 만난 관촌 파출소 한 모 경위님의 한숨 섞인 절실함 이었다. 그렇다 농촌의 인구는 해마다 줄어든다. 하지만 농촌 내에서도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 보다 절실한, 보다 절박한 그들에게 우선이 되는 '힘듦'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찾아보고자 했다. 우리가 몰랐던 관촌만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와는 다른 농촌만의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4개의 장소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1. 장소의 핵심으로 평생을 버스에 오르내리던 고단한 인생사의 공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나 만들어지는 '할머니(Harmony) 플랫폼'
2. 기존 상업시설의 위치에서 원주민과 귀농인 간의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지는 6차 산업의 중심 '함께 나누는 장터/소농인 지원센터'
3. 외부인과 관촌면 주민이 만나는 정보의 공간이자 사선대의 '四仙'을 형상화 하는 '어서 와 임실치즈 말곤 처음이지?'
4. 이러한 공간을 이어주고, 관촌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다 같이 돌아 정류소 한 바퀴'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품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치~~즈!'는 최소화된 건축의 역할로 완성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거점 공간이자, 관촌에 머무는, 관촌에 들르는, 관촌을 사랑하는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문화 정류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수상 | 멈춤에서 머무름으로

동명대학교 | 김도영, 한상렬, 정기흠



작품설명

함양군 마천면은 군청에서도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복지, 문화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마천면 내의 사람들 간의 화합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함양군청, 마천면 23개의 마을들을 지나서 지리산 입구까지 이동하는 버스 노선을 활용한 버스 정류소 시설의 이점을 살리고자 했다.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마천면도 인구 유입은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

이런 멈춰있는 공간을 내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문화 시설의 여건을 갖춰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서 외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머무르고 싶어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야외 광장, 브릿지 광장,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프로그램과 공간을 비롯하여 마천면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 체력단련장,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주고 카페, 도서관, 공유 주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갖춰 내외부 유저들 간의 소통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농촌에서의 이 정도 규모를 활용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채광의 이점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마천면의 버스 정류장들의 문제점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예산으로 큰 효과를 페컨테이너가 가져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페컨테이너를 활용한 버스정류장들을 배치해 주었다. 여기에 지역 특산품인 꽃감과 꿀 등의 색감을 입혀주면서 페컨테이너라는 인식을 보완 해주면서 마천면에 새로운 특색을 불어넣었다.



동명대학교 | 김도영, 한상렬, 정기흠

우수상 []의 문

영남대학교 | 박지연, 정명수, 경우현



작품설명

관촌은 임실군에 위치하여 전북의 대도시인 전주와 임실 사이의 연결점 즉 도시와 농촌의 색을 이어주는 장소에 있는 지역이다. 그에 따라 비교적 귀농, 귀촌의 접근이 쉬운 지역이며 실제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촌의 사회 현실과는 다르게 현 관촌은 적절한 문화시설 및 노후화된 건물들에 대한 건축적 보완이 행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관촌의 초입에 위치한 관촌 시장과 더불어 관촌 지역의 결정점에 위치한 관촌 버스정류장을 재해석 및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관촌 지역의 형태적 보완 및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과 개념들이 정류장이라는 건축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문이라는 컨셉이었다. 예로부터 문은 서로 다른 공간을 이어주기도 하며 나누기도 하는 요소였다. 관촌과 타 지역과의 교류와 더불어 관촌 지역의 경계점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과 정류장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한 문의 개념과 적합하게 섞여 새로운 미래 농촌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관촌은 충분히 매력적인 지역이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낮은 건축물들을 보면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형태들이 눈에 보인다. 다만 다른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사업적 발전에 따른 파괴된 모습들이 우리나라엔 너무나도 많아 이러한 관촌의 모습을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싶었다. 우리가 계획한 새로운 버스정류장의 형태가 조금이나마 관촌과 다른 미래 농촌 사회의 건축적 형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남대학교 | 박지연, 정명수, 경우현

장려상 관촌으로 오람가람

원광대학교 | 강민서, 문인범, 신윤섭



작품설명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는 현재 마을 곳곳에 문화/복지시설이 있지만 활용도와 각 인프라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또한 귀농 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단절, 관광지에 대한 정보와 체계 부족으로 인해 낙후되고 있다.

관촌리의 버스터미널은 주변의 녹지, 섬진강과의 관계와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입지로 많은 활용도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가람'이라는 강의 순우리말을 활용하여 관촌리에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와 활기가 마을에 흐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귀농 귀촌인, 관광객들 간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마을에 사용되지 않는 외부공간을 정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문화의 집, 희망 농기구 등 기존 인프라 간의 연계를 통해 마을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자 했고 강을 경계로 마을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관광지와 유적지를 이어주기 위해 자연 / 생태 프로그램을 부여한 수변공간을 계획하고 데크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조성하였다. 또한 관촌 따릉이, 가람 / 오람길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특색을 담아 관촌리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변화하는 관촌리의 흐름을 통해 주변 마을까지 변화의 물결이 흐르도록 하여 농촌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원광대학교 | 강민서, 문인범, 신윤섭

장려상 온마을에 꿀 떨어지네

동명대학교 | 김경수, 민건영, 정준혁



작품설명

현재 농촌 사회는 인구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촌에 위치한 터미널의 역할은 약화된다. 대상지는 함양군 마천 터미널로 인근 마을에서 올 수 있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생활 SOC 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 청년들을 위한 시스템과 기존 주민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마천의 정체성인 양봉사업, 꿀을 생활 SOC 복합화 도입과 함께 장소성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농촌의 수익구조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쇠퇴되고 있는 현 농촌 터미널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기존 함양 마천 터미널과는 달리 배후 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닌 청년,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터미널과 생활 SOC 복합화의 연계를 이끌어 낸다. 더불어 마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꿀을 통해 마천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아 주고자 한다.

이를 6차 산업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은 마천 내에서 꿀을 생산하고 청년들은 생산된 꿀로 온디맨드 꿀 공장을 통해 유통 및 판매를 진행하며 주민들과 청년과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낸다. 가공된 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며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제안한다.

당흥 마을과 배후 마을들은 대상지를 통해 꿀이라는 요소로 연결되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꿀벌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며 꿀과 관련한 일자리 또한 창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형성하여 활발한 농촌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역 거점 터미널을 제안한다.



동명대학교 | 김경수, 민건영, 정준혁

장려상 커넥:線(선)

한경대학교 | 최지원, 류성호, 노성찬



작품설명

[마을단위]

춘향로의 의존성이 커 관촌리 내 인구 유입이 감소했다. 인구 유입의 감소는 마을 상권의 붕괴와 편향된 네트워크를 초래했다. 우리는 인구 유입 감소의 원인을 마을 내부 상호작용의 부재로 보았다. 따라서 붕괴된 상권, 퇴색된 귀농 문화 마을, 사선대와 섬진강 등의 관광자원을 '길'에 주목하여 각각의 자원들을 하나의 선으로 긴밀하게 연결했다.

- 시장길 : 풀리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판매 공간을 확보해 주어 보행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 문화길 : 무대, 벽화로 문화의 흐름을 연결해 주었으며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하여 참여형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 녹지길 : 사선대로 향하는 섬진강 데크를 설치하여 기존 버스 노선이 없어 단절되어 있던 사선대로의 유입이 원활하게 하였다. 단절되어있던 지점별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그 흐름을 관촌 터미널과 연결시켰다.

[관촌 터미널]

기존 터미널은 외부인을 위한 건물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고안하여 원주민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버스가 진입하던 오픈스페이스를 보행자를 위한 소통마당으로 구성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촌리 주민, 귀농 마을 주민, 배후 마을 주민, 귀농체험인이 상호 커뮤니티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더욱이 다양한 문화 및 체험공간을 제공 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룬다.

[리(里) 단위]

생활 SOC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배후 마을에는 커넥선 버스&정류장을 배치했다. 커넥선 버스는 버스+기능을 합하여 배후 마을에 SOC를 제공한다. 커넥선 정류장은 정류장+기능을 합하여 리 단위에 다양한 문화시설 및 요구되는 기능을 부스 형태로 제공하여 리 단위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



한경대학교 | 최지원, 류성호, 노성찬

장려상 여산면,기회의 전환점이 되다

한경대학교 | 안수지, 김도협, 전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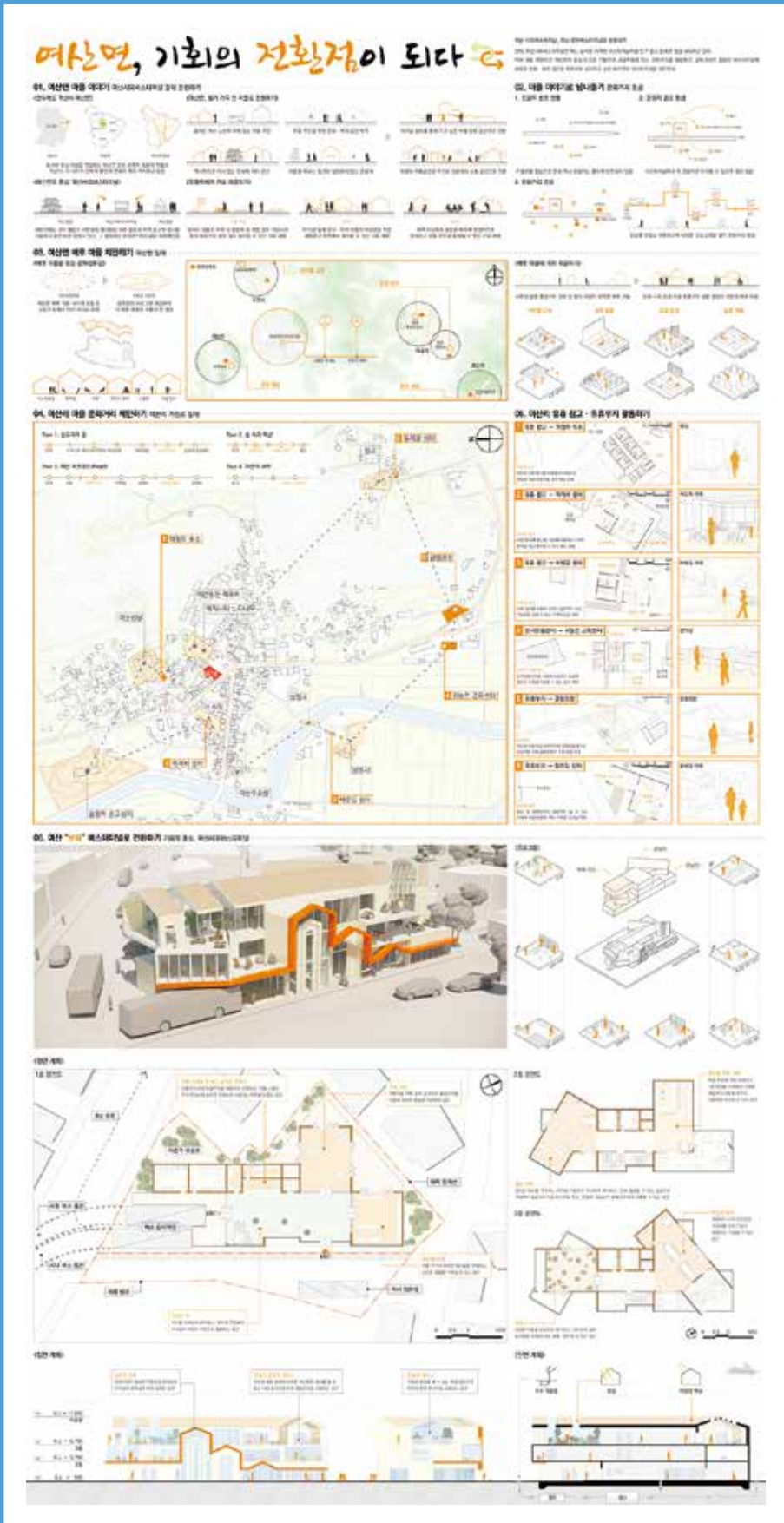


작품설명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은 호서와 호남 지방을 연결하는 문화, 교통의 요충지로 익산시와 더 나아가 전라북도의 발전과 변화의 축에 있다. 여산면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준 버스의 기종점인 여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여산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느 농어촌 지역의 버스터미널처럼 인구 감소 문제로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주 이용자인 마을 주민, 특히 노약자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산면은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복지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 문화재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안으로 여산면의 중심 도로인 가람로에 관광자원을 잇는 문화거리를 형성하고, 문화거리의 중심인 버스터미널에 새로운 문화·복지 공간을 제안하여 찾아가고 싶은 여산면과 버스터미널을 계획했다. 여산면 마을의 중심인 터미널은 마을을 활기로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들고, 여산 “문화” 버스터미널로 전환한다. 본 제안은 버스터미널의 옛 기능인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회복하여 이용자인 마을 주민, 관광객, 귀농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기대한다.



한경대학교 | 안수지, 김도협, 전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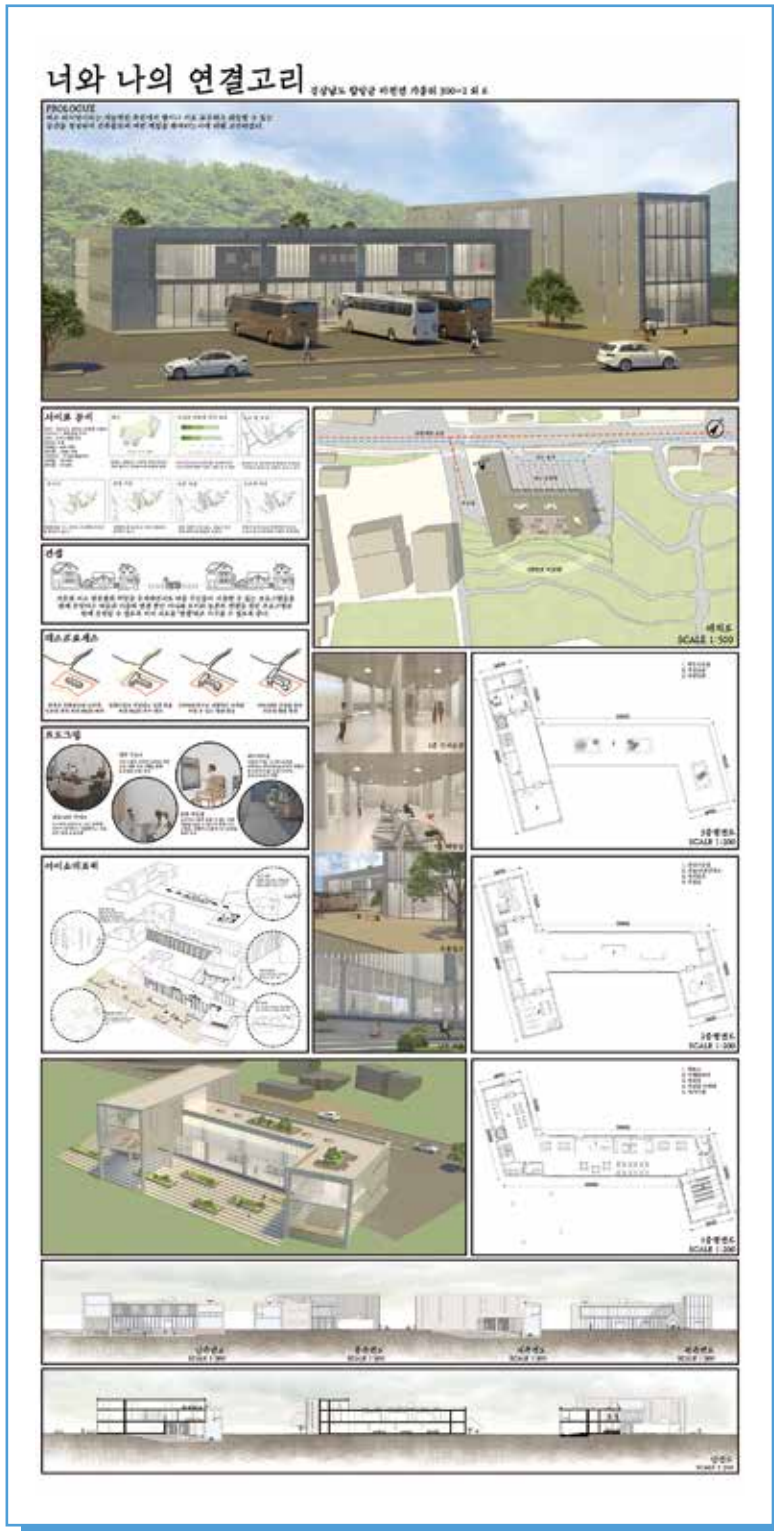
입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영남대학교 | 권동구, 김성렬, 양가영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가 맞닿는 경계에 위치한다.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로 동서남북으로 산이 있고 남측으로 임천이 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의 사회적 현상인 이농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마을 인구의 반 이상이 노년층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가흥리의 부족한 주민들의 문화생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의 생활 SOC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버스 터미널과 더불어 농촌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과 부족한 복지 시설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첫째,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 편의점에 마을 특산물 판매대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부족한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추구하였다. 둘째,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작업실과 건강 교실을 마련하였다. 작업실에서 외부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작업한 주민들의 미술 작품은 전시공간에 전시하여 또 다른 외부인들의 유입을 의도하였다. 셋째, 마을의 부족한 의료 시설을 보충하기 위하여 방문진료실을 마련하였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복지 시설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귀농/귀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귀농/귀촌 안내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외부인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도모하였다.

마을 주민과 외부인들에게 열린 북측의 매스, 주변의 자연환경을 품어 이용객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남측의 매스 형태로 발전시켜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 주민들과 외부인들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발전시켰다.



입선 2022 지금 우리 여산은

대구카톨릭대학교 | 장희원, 김동연, 곽주환

여산리에는 많은 역사적인 유적이 있다. 먼 옛날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고목인, 500년 된 느티나무부터 여산동헌, 백지사터, 순교성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을을 직접 답사해 보며 느낀 건 이러한 마을의 노드(NODE)점 사이에 쉬어갈 휴식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버스정류장 기능을 하는 복합문화센터. 더 나아가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버스정류장 유닛'이다.

유닛이 마을의 입구에서 시작점의 이미지도 주고, 각 노드점 사이에 위치하여 마을주민과 찾아올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과거의 버스정류장은 단순히 다음 정류장으로 거처가는 거점의 공간이었다. 기존 마을의 주민과 타지역 주민이 '정류장'이라는 공통된 소재로 만나게 되는 공간이었다. 지역주민의 휴식과 타지역 관광객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과거의 대합실의 공간이 긴 회랑을 구성하고, 형성된 회랑은 마을전체로 뻗어나가, 건물이 위치한 곳이 여산의 '심장'과 같은 이미지를 형성한다. 건물내부는 지역주민과 외부인이 만날 수 있는 북카페, 주민들의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실, 성지순례 인원의 숙박을 고려한 게스트하우스를 구성한다. 각 실별 이용하는 이용객의 연령대, 시간대를 고려하였다.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야간 출입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심장을 기준으로 피가 순환하고, 온전히 순환할 때 무탈한 우리의 인체처럼, 여산리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회랑과 형성된 유닛들로 마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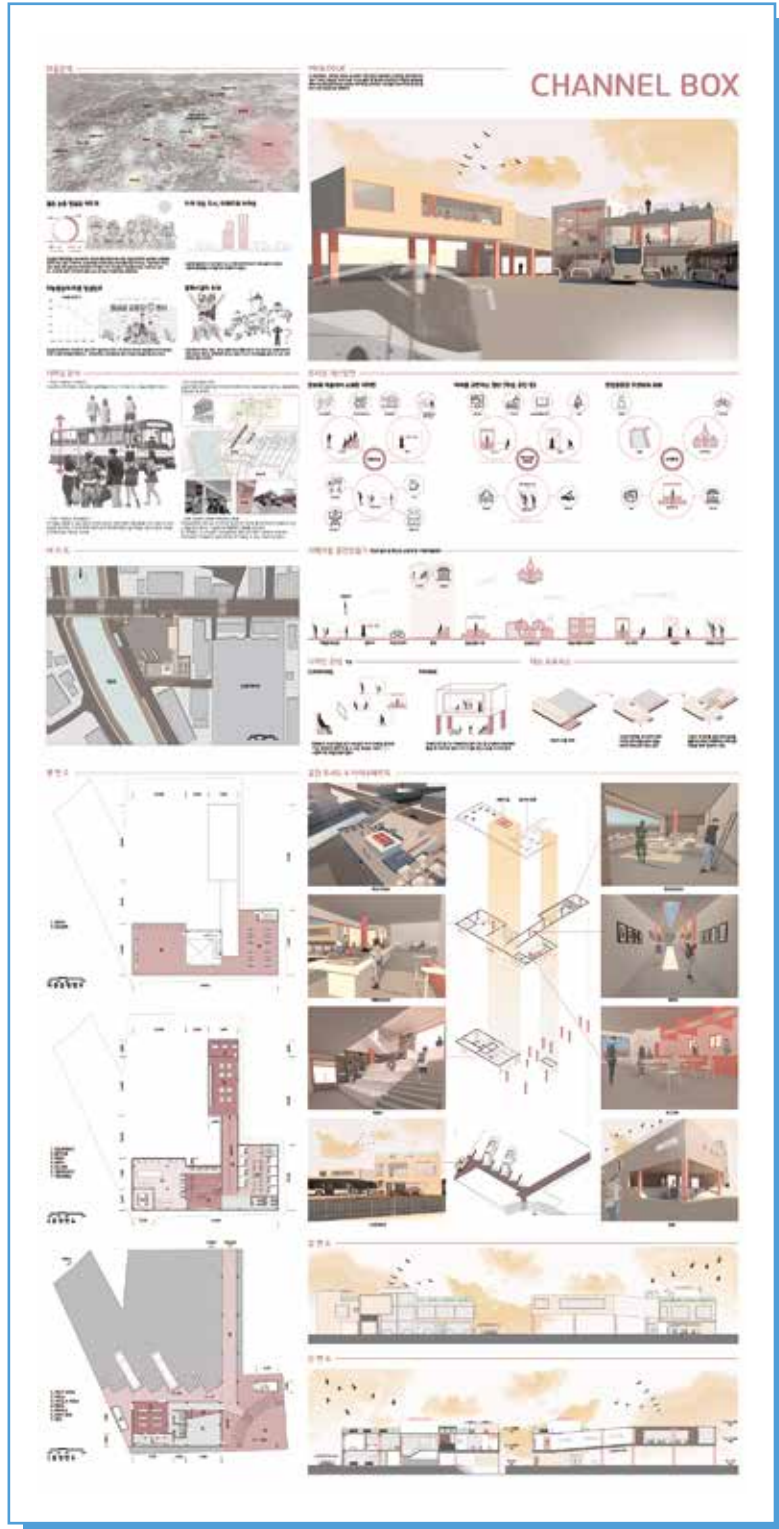
입선 Channel Box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 이재희

이도리는 다른 일반적인 농촌에 비하여 고령화를 말하기엔 젊은 연령층이 거주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다.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여 교통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있었고 소수의 어르신을 제외하고 전주로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학생, 군 장병들이 터미널 이용의 주가 되고 있었다.

임실은 최근 6년간 일자리 부족,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청년들의 인구감소 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는 용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 목표이다.

터미널을 이용하여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 레벨 차이를 이용한 광장과 아트리움 형태의 복심터,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경험 공유 공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담고, '잠시' 머무르기도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을 만들었다. 또 각각의 공간을 구성하는 FRAME 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마치 TV를 보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 훗날 본 프로젝트가 이도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해주는 지역거점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입선 관촌 이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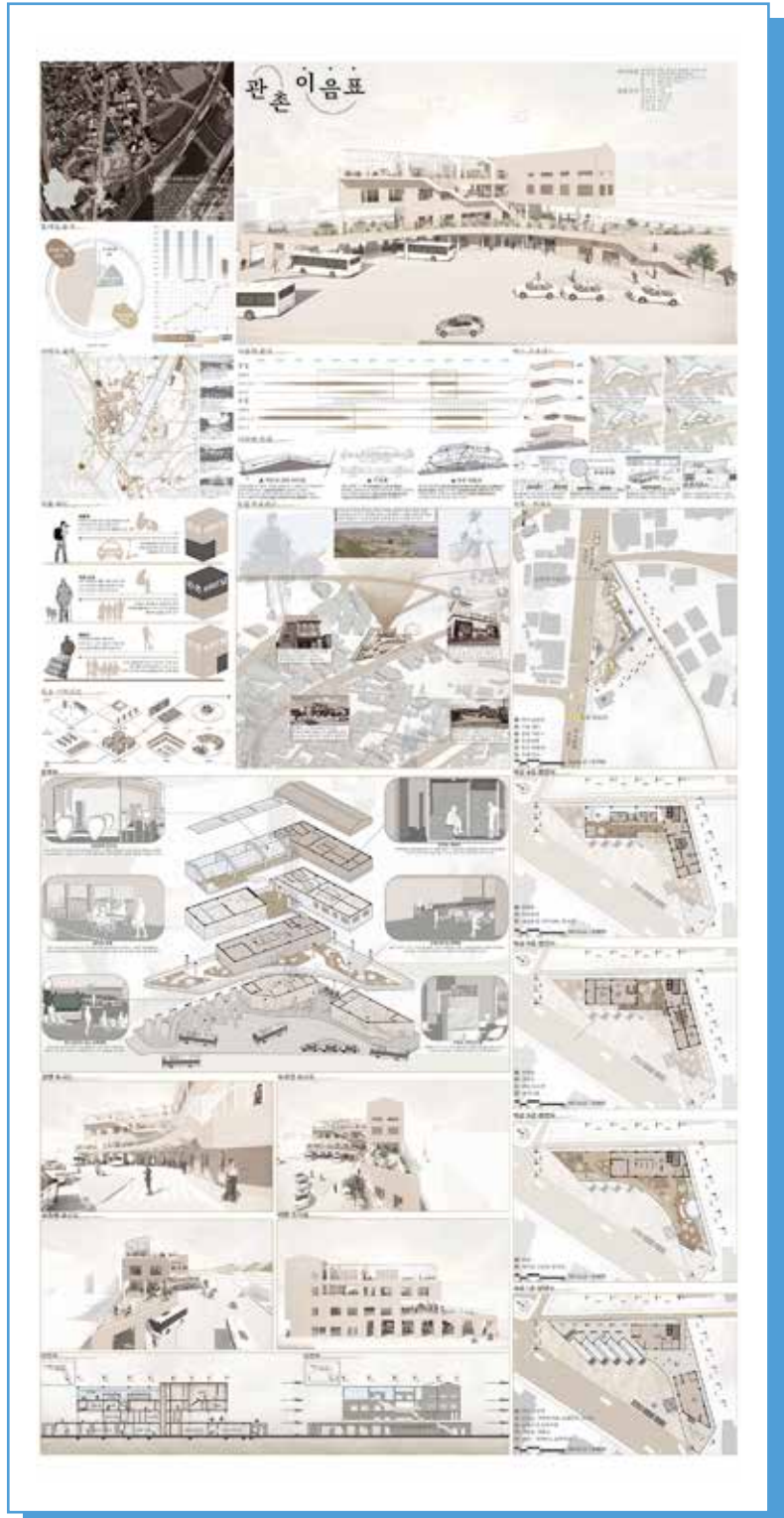
한국교통대학교 | 권평강, 김태준, 박성훈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로 32에 계획하였다. 임실 관촌면에 위치한 관촌 터미널은 197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온 마을버스터미널이다. 관촌 역이 운영을 중지함에 따라 현재는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대중교통 시설이 되었다.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관촌면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 절반이 60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이다. 동시에 사선대가 위치한 마을로 매년 관광객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버스와 택시 이외에는 이동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여행객들은 관촌면 곳곳을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관촌면은 무엇보다 생활 SOC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여가, 문화, 농업, 교통에 필요한 시설들을 수요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 프로그램들을 고안하였고, 이 프로그램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mass 계획을 1층의 차량 동선과 마을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계획하였고, 동선의 계획은 마을의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대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또 기존의 공간 배치를 반영하여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마을과 자연의 시퀀스를 이어주기 위해서 비움으로 연결했다.



입선 낭랑18세

동명대학교 | 이미르, 최하늘, 최재원

김해 진영은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충분한 인프라 및 지역거점 공간이 존재하지만 구도심에는 노후화된 건물과 부족한 인프라와 진영 전체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영에 청소년의 활기를 통해서 구도심에 지역 거점을 만들어주려 합니다.

우선 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기존 시설에 제일 취약한 점이 노후화된 건물과 보행자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보행자 통로를 충분히 열어줌으로써 접근성과 안전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해는 유독 청소년층 비율이 높으며 진영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진영 청소년들이 복지와 혜택을 받으려면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도심에 청소년의 유입을 만들어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우선 청소년과 가족들의 고민들을 들어 주는 상담실과 교육, 사교모임, 가족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모든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며 3층에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가족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목공 공방과 자율 공방이 있으며 공방에서 나온 작품을 전시 및 판매를 하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와 옥상정원을 통해 휴식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다목적실에서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자격증, 검정고시)을 시켜주며 바리스타 교습소를 같이 하면서 시설 내 카페와 연계를 시켜줄 수 있으며 사교모임을 통한 봉사과 공방에서 나온 작품을 기부하는 등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민들도 작품을 구경하면서 다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유입시키면서 가족들과 주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진영에 청소년의 활기를 통해 지역거점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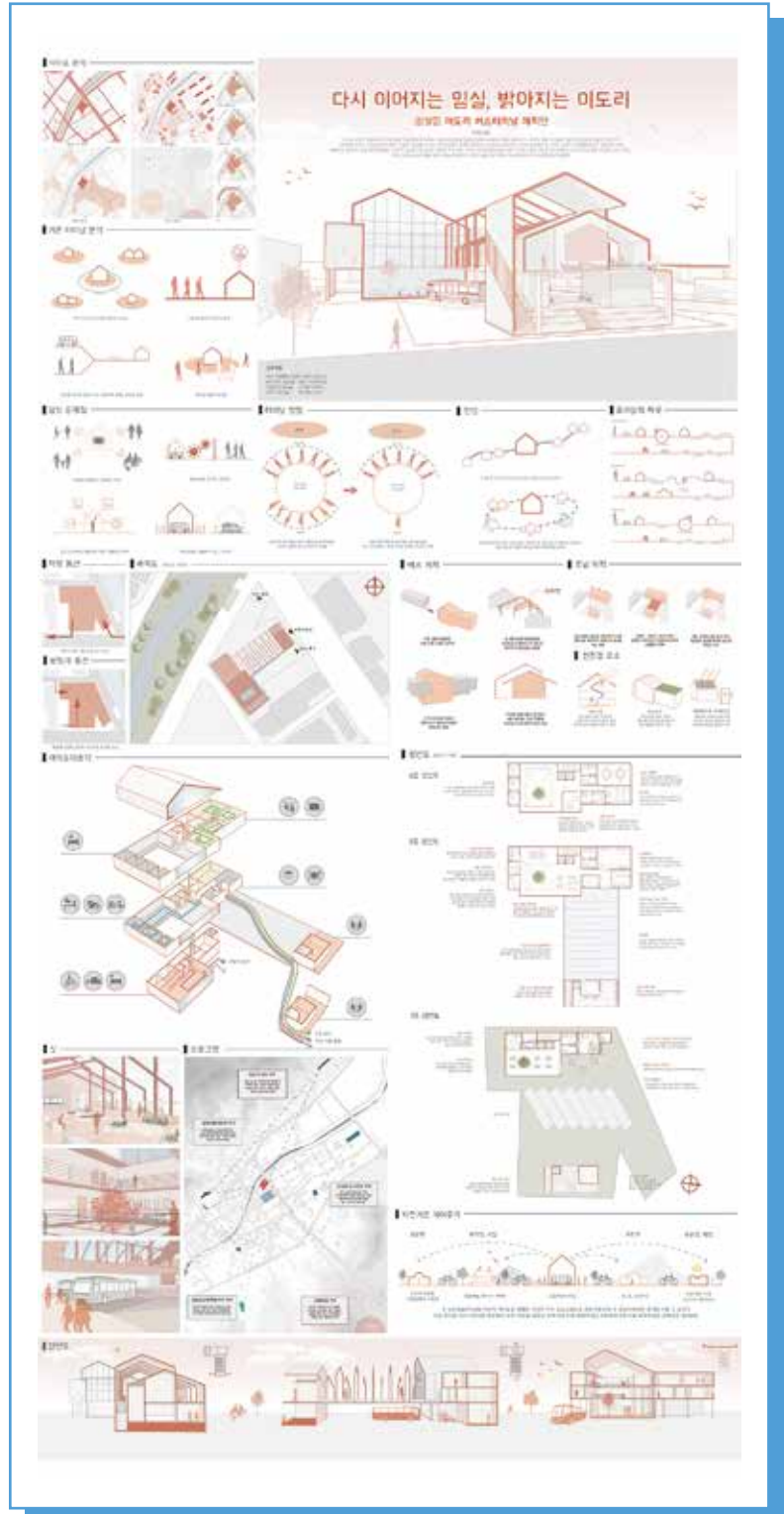
입선 다시 이어지는 입실, 밝아지는 이도리

영남대학교 | 김다현, 현나금, 정호정

입실군의 공용 터미널은 입실의 교통 중심지이자 터미널 주변은 상업중심지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며 입실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이전보다 줄게 되었다. 때문에 오늘날 터미널의 기능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더욱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민시설을 계획하고 기존의 교통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고 입실 공용 터미널을 통해 입실을 이어주며, 이도리를 다시 밝히고자 한다.

해당 대지에 기존 버스 동선을 살리고 버스와 보행자 동선이 겹쳤던 문제를 앞 매스로 보행자 동선을 분리시켜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앞 매스에는 대체적으로 이도리의 쉼터 역할을, 뒷 매스는 터미널 주기능과 지역 활성화에 위한 인프라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매스 사이를 잇는 브릿지를 통해 안전한 보행 동선을 계획한다. 또한 외부 관광객과 마을 주민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수행하며 갤러리를 통해 입실 관련 전시를 볼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제공한다. 브릿지에 박공 형태의 프레임을 설치하여 두 매스 사이를 이어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브릿지도 강조한다.

입실 공용 터미널에 자전거 대여소를 활용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입실의 관광지, 학교, 자연, 사찰, 문화 등 이도리는 물론 배후 마을 곳곳을 이어준다. 터미널 건물에 시장 사무실을 만들어 발길이 끊긴 입실 시장에 상인들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시장과 이어주고, 기존 입실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정류소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어 도서관과 이어주는 등 입실 공용 터미널에 입실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만듦으로써 입실을 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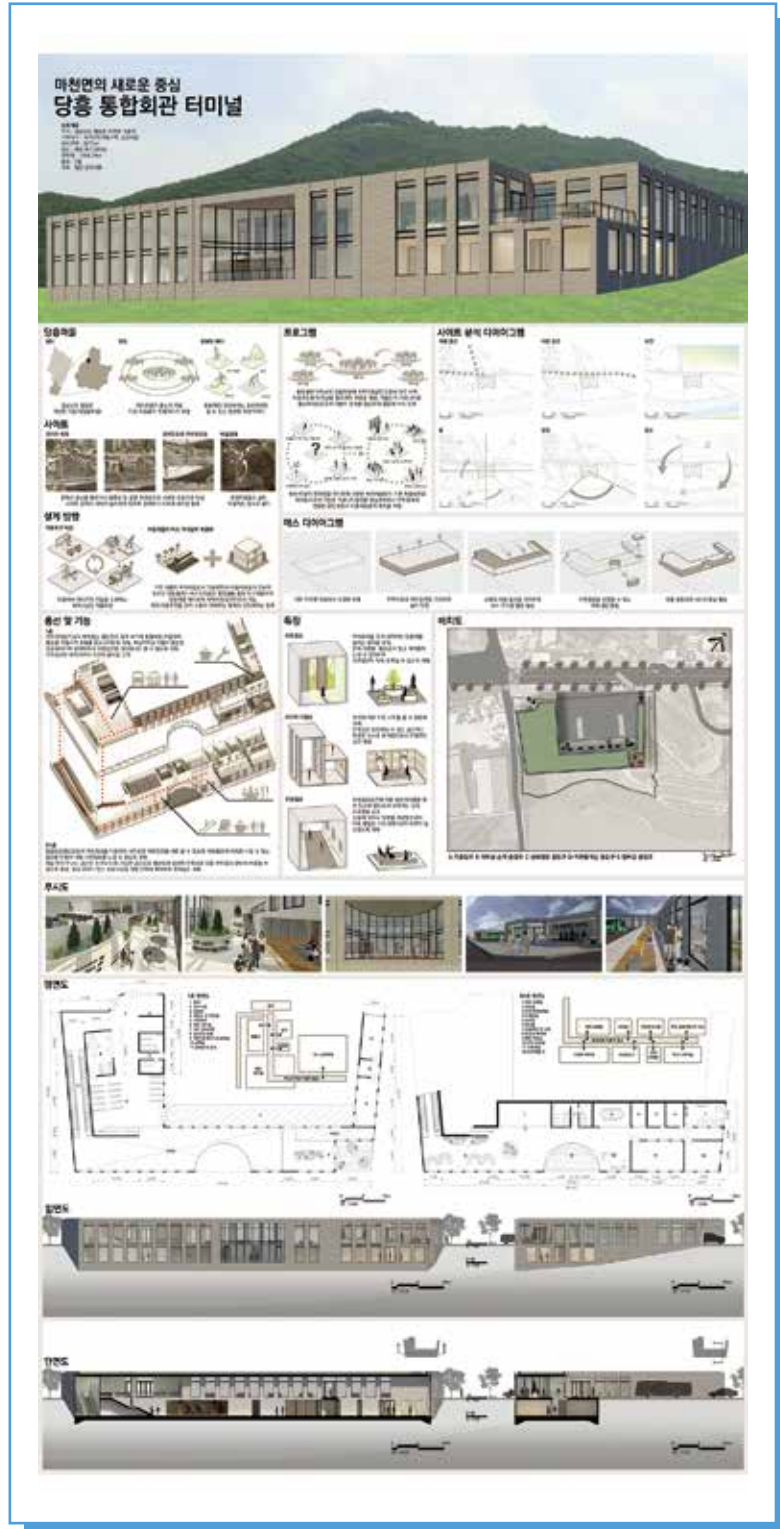
입선 당흥 통합회관 터미널

대진대학교 | 강동욱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의 당흥 마을은 주변 마을의 중심지 역할의 큰 마을이다. 버스터미널의 특성은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며 외부 타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이 터미널 안에 있을 경우에 더욱 활발한 교류가 있으므로 터미널에 마을 사람들이 오래 있을 수 있을만한 방법을 생각하였고 마을회관의 개념을 접목시켰다. 마을 회관은 농촌에서 복지 시설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자리 잡아있다.

이에 주변 마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회관을 형성하여 마을회관 기능에 추가적인 북 카페 공간과 휴게실을 복지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임천 방향으로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천과 산 뷰를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과 창을 배치하면서 기존 사이트의 대지를 이용하여 층을 배치하며 각 층마다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야외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임천 방향으로 여러 큰 창을 통해서 액자 효과와 더불어 자연경관인 원경과 건물의 바로 앞 근경, 안쪽에 화단을 배치함으로써 축경을 두어 자연이 안과 밖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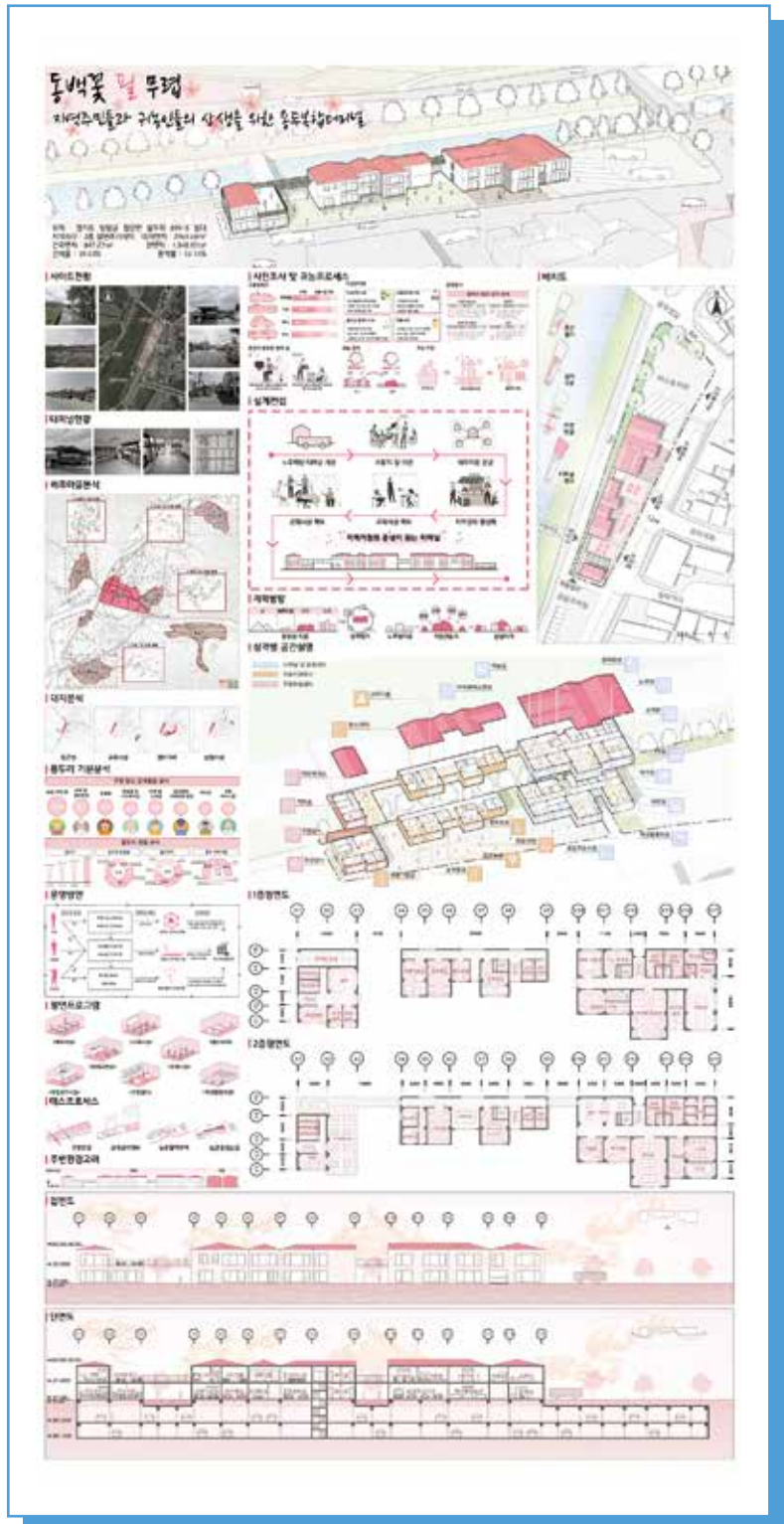
입선 동백꽃 필 무렵

중부대학교 | 황우성, 백인호, 최윤제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는 도시지역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낙후 되어있다. 귀농인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교육 시설, 문화시설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시내로 나가야 하고, 불편한 대중교통과 노후화된 버스터미널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 귀농인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는 감소되어 왔고 지역 경제 또한 감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버스터미널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귀농인들의 적응, 교류를 유도하고 관광지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통해 지역 경제를 순환하고자 하였다.

먼저, 배후 마을로의 보행로와 하천을 연결하기 위해 열어주었다. 연결축을 따라 건축물을 분동시켰고 그에 따라 분동 별 지역주민, 귀농인,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배치하였다. 분리된 지역주민, 귀농인, 관광객들을 각기 다른 성격의 마당과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연결하여 교류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농촌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유리의 사용과 디자인을 최소화하였으며 주변 환경에 순응한 형태를 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 마련 및 장터거리와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였으며 귀농 지원센터를 제공함으로써 귀농인들의 귀농 적응을 고려하였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역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여 용두리를 이색 관광지화하였으며 부족한 인프라 시설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귀농인, 관광객들의 소통을 유도하고 버스터미널을 거점화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버스터미널을 계획하였다. 이처럼 용두리 버스터미널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는 동백꽃 처럼 침체된 지역 경제를 깨우고 꽃피울 것이다.



입선 만남이 만개하는 사랑채

동명대학교 | 최유정, 손지성, 전현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위치한 임실 공용 터미널은 전라북도의 중심인 임실의 중심인 임실읍의 중심에 위치한다.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청 중년층의 이농 현상으로 고령화 문제를 겪는 임실읍은 SOC 시설 중 공공시설과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러한 부족 문제를 채우고 또한 기존 터미널의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펜스와 증가하는 노년층에 비해 부조 간 소통 공간, 명확한 구분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터미널을 사랑채 자체로 인식하고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만남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크게 구도로, 신도로, 자연 축으로 매스를 분리하였다. 구도로는 지역주민과 가장 인접한 도로로 이용 가능한 도로이고 신도로는 방문객을 위한 버스의 이동이 있는 주 도로이며 자연 축은 터미널 근처 하천이 형성되는 축을 가져왔다. 이러한 축들로 형성된 3개의 매스를 브릿지로 연결하여 중정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 중정은 터미널의 정류장으로 한옥의 사랑채에 손님들이 방문하는 것을 표현하며 실들이 마주 보는 한옥의 구조로 설계하였다. 우리가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농촌의 문제점인 문화시설 부족 문제 개선과 SOC 시설을 채워주면서 지역 주민과 외부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선 **삶, 삶, 숲**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민영, 이혜지, 이선우

임실읍은 여느 농촌처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노령화된 인구에 따라 임실읍에 위치한 SOC 시설의 프로그램들은 어르신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및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임실읍의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인 임실 시외버스터미널은 외부인과 지역 주민을 잇고 있는 곳이자, 주민 간의 만남이 일어나는 결정점이다. 모든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대지 주변의 자연을 건축물 내외부로 관입시켜 구성된 각각의 공간들에 배치된다. 이는 실내와 실외 사이의 중의적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적 요소인 옥상 정원과 선큰은 주민들에게 열려 대지와외의 경계를 지운다.

자연은 장소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적합한 요소이다. 자연을 통해 대상지로 사람을 유입시키고, 자연을 통해 사람 간 소통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버스 터미널이 가진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대상지가 가진 특성과 프로그램을 배후지역으로 확장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디지털 약자'라 불리는 고령층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를 제안한다.



입선 소통의 장

공주대학교 | 최경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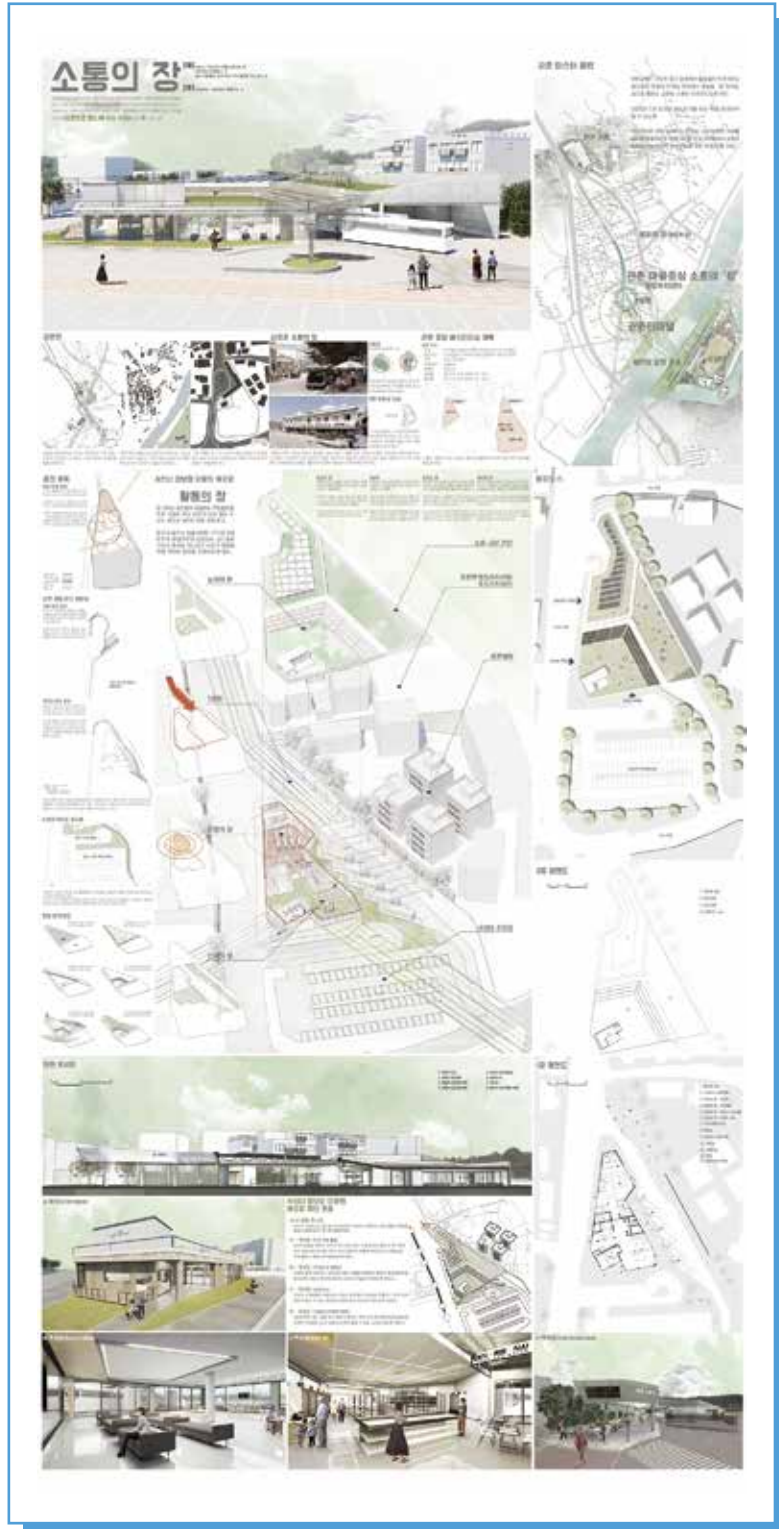
터미널은 관촌의 얼굴이 되는 공간이다. 마을 주민들은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고 다른 지역과 접한 위치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지나다니는 터미널로 새로운 터미널을 계획할 때 그 마을의 핵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관광지와 경유지로 이용되던 관촌의 생활에 있어서 터미널이라는 공간을 사람들에게 '장'이라는 무대로 계획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역 주민·외부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들을 만들고자 하였고 그 '장'들끼리의 교류를 통한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가득한 활발한 관촌의 소통의 장을 계획한다.

기존의 다소 협소한 부지의 터미널을 4개의 필지를 통합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인상적인 규모로 계획했다. 기존의 상권을 유지하며 사선대 주차장을 새롭게 개선하고, 5일 장의 연장선으로 새롭게 하여 사선대로의 확장 관촌 시장 5일 장의 확장의 공간이 된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를 고려하는 마스터 플랜으로 사선대와 같은 관광지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섬진강 공원 조성 및 사선대로의 보도 접근이 용이 하도록 연결 다리를 계획했으며 마을에 부족한 생활 SOC를 제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며 이 지역에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관촌의 첫인상으로 잊히지 않는 기억을 만든다.



입선 여지의 '거리'

한남대학교 | 김다정, 정상원

한 사람보다 물질과 그에 따른 효율이 건축 공간에서 더욱 중요하게 추구되던 시기를 우리 모두 살아왔다. 개인의 사적이고 개성 있는 공간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웃집의 장엄한 벽이 코앞으로 들어섰다. 개인과 타인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긍정적인 여지 또한 오래전에 사라졌다. 어두운 골목과 노후되어 망가진 건축 공간들 속에서의 관계가 익숙해지는 상황에 도달했다.

코로나를 거치며 특정 사물, 혹은 사람 그 이상의 대상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진 요즘, 사람들의 주체적이고 인간적인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여지적 공간의 필요성은 중요하다. 여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간이라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에 응용시키기 위해서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공간의 형상이 필요했다.

'거리'의 개념은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나는 행위의 성질이나 고유의 역사, 조경 및 채광의 정도와 같은 여러 변수에 의해 그 본질 및 순간적인 장면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여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담아내기에 충분했다.

거리에 여지적인 상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리가 쾌적하고 직관적인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대지에 대한 인상을 고려했다. 사람들의 여정의 형태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다. 중간에 정류하게 되는 공간의 성질 혹은 장면, 그리고 빈도 등에 따라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인지하게 되는 여정의 형태는 무수히 다르게 변화한다. 관촌면 터미널은 사람들의 여정의 시작점임과 동시에 경유지이다. 터미널의 첫인상과 그 속의 거리와의 직관적이고 암시적인 관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속될 것이다.



입선 여행, 산책,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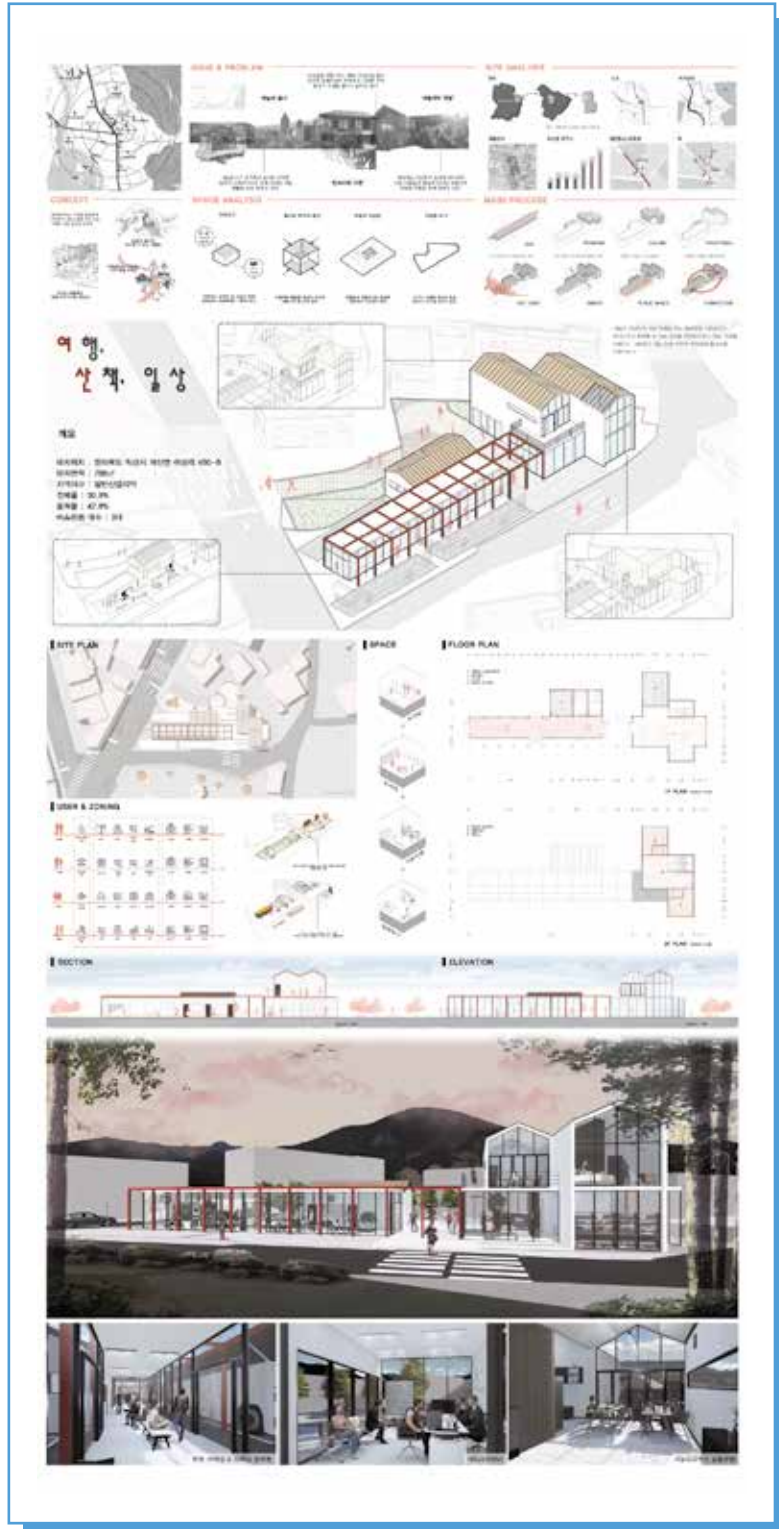
영남대학교 | 박준표, 황보건, 전호완

익산시 여산리 여산면에 위치한 시외 버스터미널은 여산리의 중심에 위치하며 현재에도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의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코로나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시외노선이 폐지되어 기존의 터미널은 낙후되고 유향화된 시설로 변질되었다.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하는 농촌마을에서 마을의 관문이자 거점 역할을 하는 정류장은 기존의 주민과 유입 인구가 관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여산면은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체육, 보건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분산되어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보호수와 같은 다양한 자연 환경이 존재하지만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주변의 자연적 이점과 향후 시간선제 운영체계 도입 시 노선 확대를 고려하여 버스 운영 댓수를 고려한 배치를 적용하였다. 총 3개의 노선을 동 시간에 운용할 수 있으며, 대지를 뚫고 지나가는 강한 축의 배치는 이용자로 하여금 대지 전체를 산책하며 특별한 목적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플랫폼은 커튼월을 이용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상쇄시키고 적색의 기둥을 이용해 구분을 시켜주었다. 프로그램은 기존에 여산면에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을 제안하여 기존 주민과 유입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거와 지원센터를 배치하여 정류장을 기존주민과 유입인구가 관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귀촌을 지원하고 쇠퇴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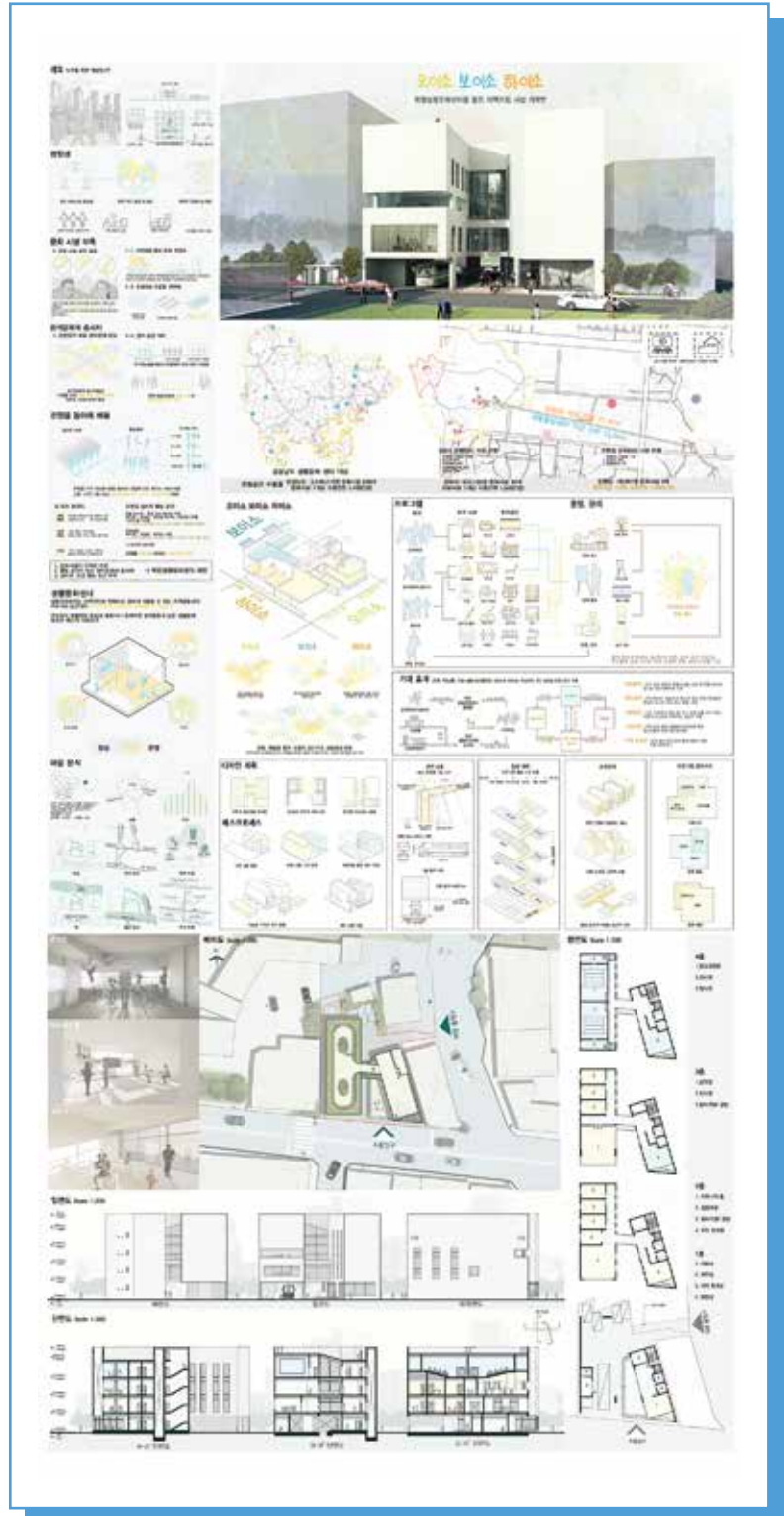


입선 오이소, 보이소, 하이소

동명대학교 | 홍영찬, 김태희, 이민태

기존 진영읍의 현재의 구도심인 진영 시외버스터미널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소통의 장소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도심 대신 쾌적한 신도심으로 발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된 큰 원인은 무엇인지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도출해 냈으며 즉 현재의 진영 시외버스터미널은 가끔 버스를 타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올 이유가 없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시금 방문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해결책이 바로 문제 그 자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을 올 이유가 있게끔 만드는 거다. 그러기 위해 먼저 사람들을 오게끔 하기 위해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지 통계, 현장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문화시설, 그중에서도 영화관이 인구에 대비해 극도로 부족하다는 걸 확인했다. 또한 동아리 활동 인구가 3분의 1인 진영의 특성상 동아리 활동, 공연 및 전시 공간과 인근 주민들이 모이거나 휴식을 할 수가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적합한 시설인 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변화하게 될 진영 시외버스터미널은 영화관, 공방, 동아리방, 주민 커뮤니티센터, 전시장 등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복합생활문화센터로 바뀌게 되며, 활동 공간을 통해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오이소', 휴식과 문화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보이소', 동아리 회원들이 스스로 문화를 발생할 수 있는 '하이소'로 다시금 태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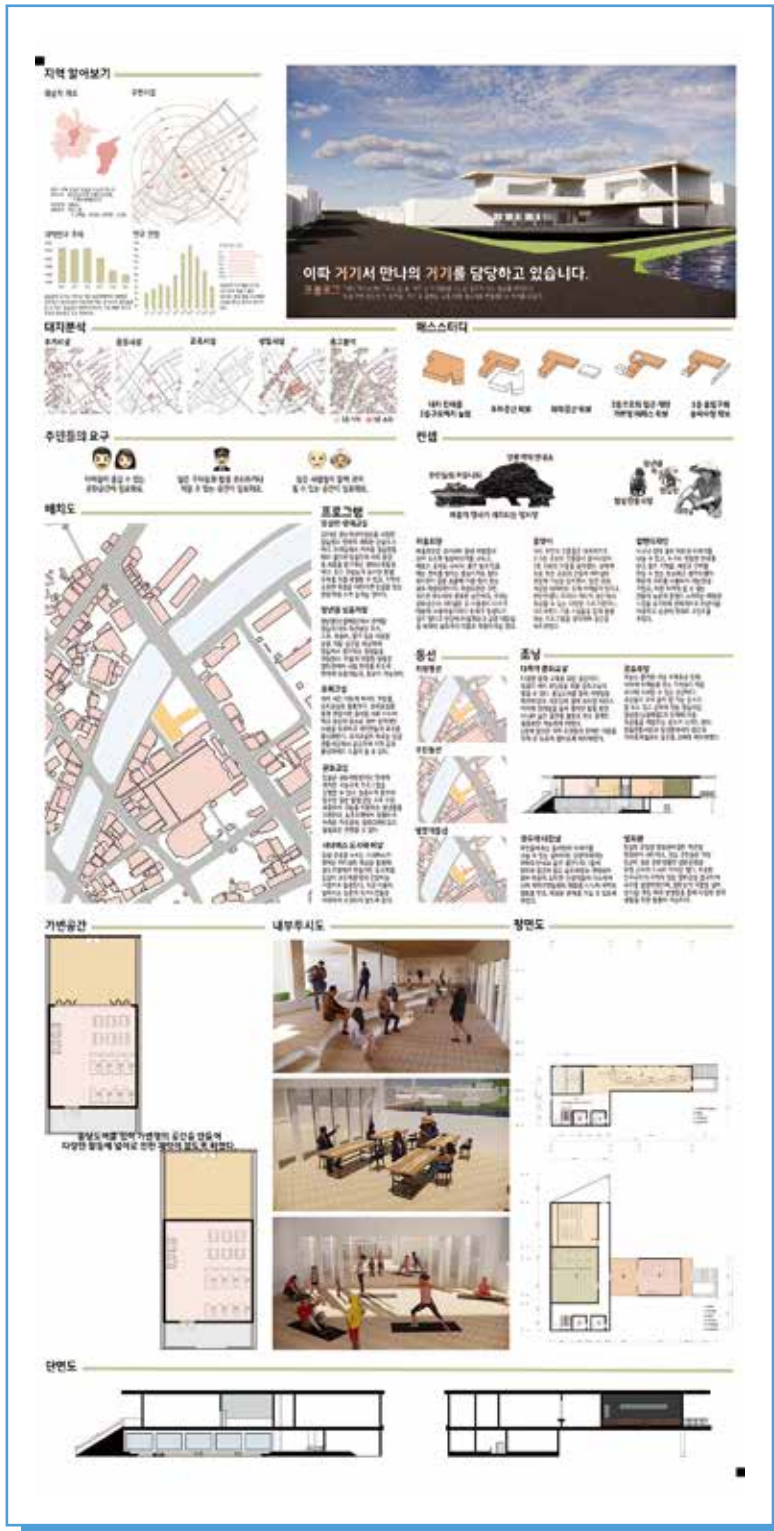
입선 이따 거기서 만나의 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 최현서, 고성수, 김민범

임실 공용 터미널은 임실 안팎을 오가는 버스들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교통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터미널의 이용객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전체의 인구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터미널의 역할과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복합시설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임실 터미널을 계획하였다. ‘거기’라고 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자 한다.

기존 임실 터미널의 모습에서 시작한 건물의 형태는 익숙함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색다른 느낌을 준다. 나무 재질과 흰색 벽체로 따뜻함을 표현하고 주변과 높이를 비슷하게 해 농촌 지역에 어울리는 건물을 구성했다.

‘거기’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 놀이 시설과 터미널 직원에게 필요한 휴식,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살펴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민들의 쉼터이자 안내소 역할을 하는 대합실과 터미널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로 승하차장이 있는 1층을 구성했다. 2층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여러 연령대가 사용하는 문화교실, 조리가 가능한 식당이자 지역의 식품연구실 역할을 하는 공유 주방, 부족한 문화공간을 채워줄 영화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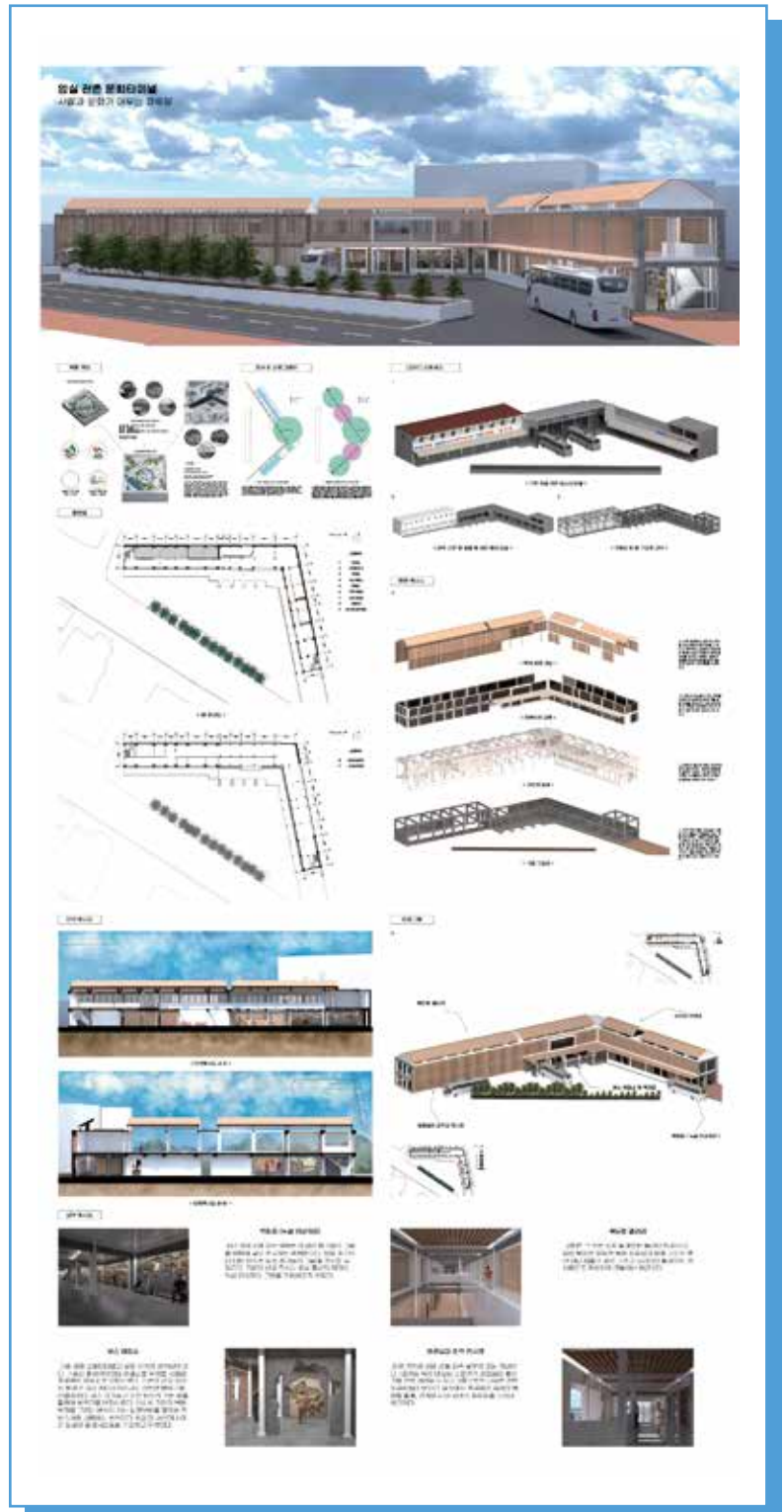
입선 **임실 관촌 문화터미널 : 사람과 문화가 머무르는 곳**

홍익대학교 | 이기수

관촌 공용 터미널은 관촌리 마을 외곽에 위치하여, 임실군 내에서도 버스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 관문이다. 800m²의 작지 않은 부지이지만, 좌우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 상가들과 1973년에 준공되어 낡은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

이에 버스 터미널을 교통 관문의 기능을 유지한 채 마을의 지역거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을 통한 건축 공간을 계획하였다. 건물의 구조체(기둥과 보 등)는 유지하며 동선이나 공간을 변화시키는 방식인데, 이는 낡은 건축물을 폐기해야 할 과거가 아닌 남겨두어야 하는 건축 유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를 파악하고, 기존 복잡한 동선 대신 하나의 순환형 동선을 기획하였다. 이 건축물의 특징은 ‘ㄱ’의 형태인데, 내부의 ‘ㄱ’자 형태의 동선을 기획하여 기존 마을에 부족했던 문화, 예술 관련 인프라를 프로그램으로 배치하였다. 하나의 순환형 동선에 따라 조각상 전시, 벽화 전시, 청음실을 기획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기존의 기둥과 보와 같은 구조적인 요소를 남겨두고, 그 위에 보조적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여 새로운 동선과 공간 기획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내, 외부에 목재를 부분적으로 강조하여 임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입선 **임실에서 만남을 싣고**

한경대학교 | 조일묵, 박우형, 윤채영

이도리의 임실 공용 터미널은 임실군의 중심 운수 시설이다. 최근 길어진 배차 간격과 줄어든 방문객의 수로 인해 임실 공용 터미널의 배차 차량의 수가 줄어들고, 운행 노선의 수도 줄어들었다.

임실 공용 터미널의 기능 축소 기능의 원인은 문화의 불모지라고 알려진 임실 이도리 마을 활성화가 뒤떨어진 점에서 찾았다. 사람들의 뇌리에 '지나가는 마을'이라 박혀있는 임실 속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일상 속 새 문화를 발굴하여, 기존 구 문화와 연결하는 만남을 찾는 행위를 통해 임실을 문화의 노다지로 활성화 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계획안은 공용 버스터미널에 커뮤니티를 접목한 시설로, 마을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한 뒤 실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마을이 낙후되는 원인 분석 후 임실의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4가지의 테마 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하여 앞서 도출된 프로그램과 엮어 주민, 관광객, 귀농인을 위한 거리를 만들었다. 4가지 특색 거리와 접해있는 공터와 빈집은 추가적 계획을 통해 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써 계획하였다. 대상지는 원래 있던 건축 일부를 남긴 채 정면성을 강조하고자 박공의 입면을 도입하였고, 원래의 버스 입·출구의 위치와 대기 장소가 보행자의 유입을 방해하기에 터미널의 감소된 대기 차량을 4대로 산정하여 승차 홀 4개소를 사이트 좌측으로 옮겨 승차로를 계획하였다. 매스 우측 부는 하천과 맞닿아 있는 오픈된 조망을 가지고 있어 보행자의 유입을 돕는 효과를 주고 강조되는 매스의 변화를 주고자 하천 축을 활용하여 긴 돌출 매스를 관입시킨 형태로 임실 공용 터미널 계획을 하였다.



입선 진영으로 감

동명대학교 | 정수지, 심규리

과거 진영은 김해시의 유일한 역까지 보유하고 있던 핵심지 중 하나였으나 김해시는 신도시 개발에만 힘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원도심의 발전이 없었고 지금은 진영역 이전으로 인해 쇠퇴해 가는 중이다. 그로 인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속에서 우리는 영화관과 같은 핵심 문화시설을 제공해 다양한 연령층의 발길을 이끌고 장기 요양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농촌 요양 시설인 케어 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존의 요양 시설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복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도심과 원도심의 유저들을 순환시켜주려고 한다.

또, 스터디, 창업 아이디어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려고 한다. 중심에 위치한 야외무대 및 소광장은 가변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의 일부이며 시기별로 상이한 행사 혹은 프로그램이 열려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새롭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단감을 활용한 6차 산업 프로그램의 연계로 사람들에게 이색 체험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건물 곳곳에 배치하여 사람들을 다양한 동선으로 이끌어준다. 플라마켓, 카페, 와인 공방, 레스토랑은 단감 연계 프로그램으로 일반 주민도 이용 가능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체험, 구매한 것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의 간단한 연계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진영 시외버스터미널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거점시설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화합의 장소로 만들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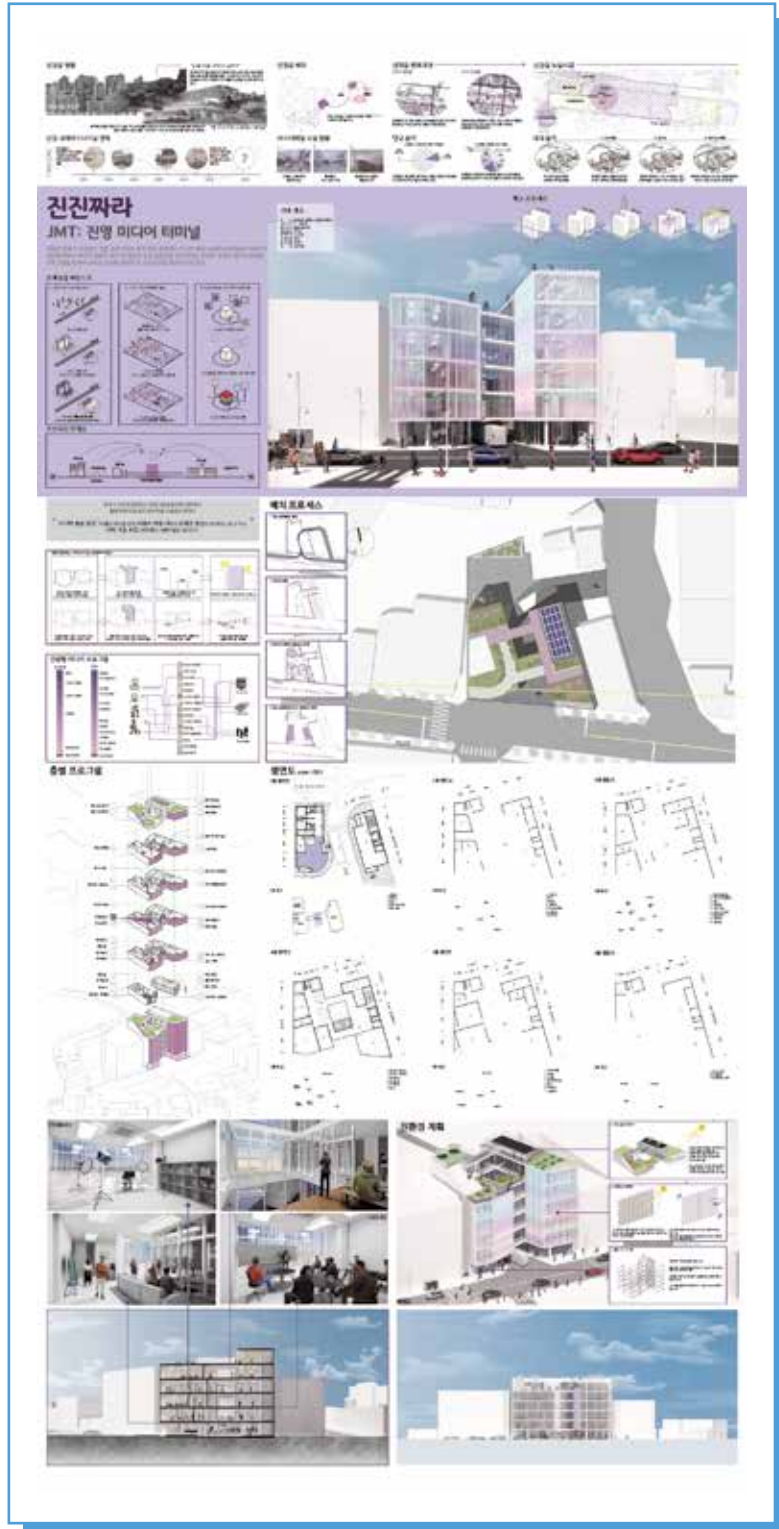
입선 **진진짜라 (JMT:진영 미디어 터미널)**

울산대학교 | 윤경원, 박유민 / 경상국립대학교 | 정효창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진영읍은 1977년 형성된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된 공간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 시작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을 겪기 시작하였고 점점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그에 따라 점점 구도시와 신도시의 격차는 벌어졌고, 김해시와 진영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젊은 인구의 신도시 이주와 동시에 구도심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단일 용도의 건축물로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선 잘 찾지 않으며 건축물 또한 단조롭고 오래 된 형태로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본 건축물 계획에서는 구도심 및 진영읍의 특징인 농촌지역은 새로운 문화가 정착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 도시와의 디지털 및 미디어 서비스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격차 또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 아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디어 와 그에 수반되는 체험 및 전시공간을 계획하여 중심 커뮤니티 공간의 형성과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탑승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갈 노년, 유년 인구를 위한 미디어 및 전자 기기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미디어 특화 시외버스 터미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선 터미널속품앗이

동명대학교 | 채한섭, 박민근

김해시 진영읍은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다른 지역과 다르게 김해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또한 점차 늘어났다. 하지만 마을의 텃세와 농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떠나는 귀농 및 귀촌인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인과 귀농 및 귀촌인의 커뮤니티 SOC 시설을 계획하여 귀농 및 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공생하는 마을을 형성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SOC 프로그램으로 로컬푸드 구매 그리고 요리교실을 계획했다. 요리 교실에서 활용되는 재료는 귀농 및 귀촌인과 기존 농업인이 수확한 재료를 활용한다. 귀농 및 귀촌인과 기존 농업인만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SOC 시설을 형성했다. 커뮤니티 SOC 거점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목적성이 없는 선택적인 공간을 형성했다. 로컬푸드와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목적과 요리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 없는 주민들도 더운 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추운 날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다. 2층에서 로컬푸드인 차(Tea)와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고 5층은 요리교실이지만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는 오픈 키친으로 활용하여 직접 요리해서 로컬푸드와 함께 3층과 4층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다. 각 프로그램의 경계성을 없애기 위해 VOID와 직선 계단, 스킵 플로어를 활용하여 각 층 그리고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공간을 형성했다.



입선 마천의 삶을 잇다

가천대학교 | 남기훈

과거 농촌은 사람들의 주된 일터이자 삶터였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사람들은 일터와 삶터를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속되는 농촌의 과소화는 농촌마을의 소멸 위기로 이어졌으며, 농촌을 이끌, 농촌을 위해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농촌은 농촌다움을 잃어버렸고, 농촌의 고령화는 농촌의 어두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 팬데믹과 설 틈 없는 도시 생활 속, 사람들은 다시 자연을 찾기 시작했고, 농촌으로 눈길과 발길을 돌렸다.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귀농인과 귀촌인들은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이다.

하지만 모두가 성곡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인프라와 정보의 부족으로 한계를 느끼는 등,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반귀농 또는 반귀촌을 선택하고 도시로 돌아간다. 삶터와 일터를 옮기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본인들의 인생과 가족을 걸고 결정한 귀농·귀촌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농촌에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주고, 기존 주민들과 귀농·귀촌인 사이의 커뮤니티를 비롯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수많은 농촌 중 하나인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의 한 버스정류장을 대지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버스정류장은 이전 정류장과 다음 정류장, 넓게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주고, 주민들과 (예비) 귀농·귀촌인, 그리고 외부인들을 잇고자 한다.



입선 **마음은 공감, 공간은 교류** 우리동네 거점공간 '우리 진영에서 살란다'

동명대학교 | 김지혜, 박은지, 김동혁

도시로의 인구 이동,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인구감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력난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농촌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체류 외국인 비율과 다문화가정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중 김해시는 소규모 중소기업체가 많아서 외국인 비율 1위라는 결과가 나왔고 진영읍이 제일 많은 반면 외국인 지원시설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영읍 주변은 논과 공업단지로 둘러싸였는데 농사일이 끝나고 갈 곳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공단 일이 끝난 후 바로 귀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주민과 친해질 기회가 없고, 남편은 일을 가면 혼자 육아를 하는 이주외국인은 자녀의 언어 발달이 걱정이다. 지역주민 또한 쉴 곳이 마땅히 없어 도서관 앞 벤치나 정자, 마트, 상가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한다.

지역 거점 공간으로써 누구나 편하게 느끼고 정겹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골집을 컨셉으로 하고 시골집의 건축 요소를 새롭게 해석하여 그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까지 배우고 체험하고 나누는 공간의 장을 활성화하려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상품화하여 관리 운영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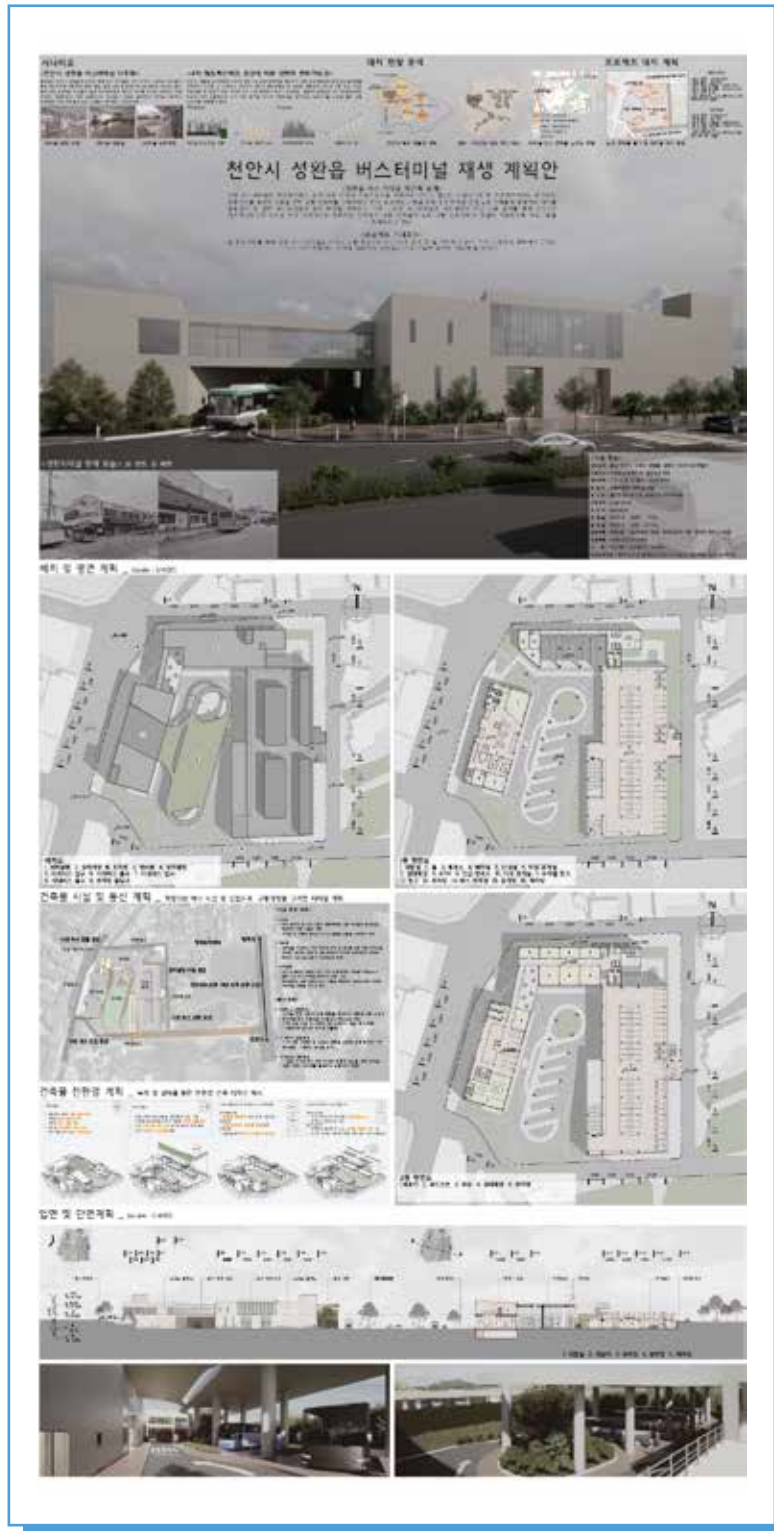
입선 천안시 성환읍 버스터미널 확장 신축안

선문대학교 | 유용우, 이한울, 현철우

성환 버스터미널은 2024년에 조성되는 제조혁신파크 유치 이후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하여 성환시에 증가하는 인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설계 진행 과정에 앞서 우선 터미널 인접 노후 건축물과 공/폐가의 대지를 활용하여 현 성환 버스터미널에 부지 확장을 계획하였고, 기존 버스터미널은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 후 재건축 설계를 통해 제조혁신파크가 유치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에 맞춰 성환 터미널이 주요 교통 인프라로 적절히 적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려 한다.

시설은 기존 터미널에 있는 터미널동과 조차장을 바탕으로 여객 차량의 대기 및 정비를 위한 차량 관리 시설인 정비동과 버스가 원활하게 순환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주변에 불법으로 노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정리하기 위한 주차 빌딩을 확장 계획하였으며, 기존에 존재 하던 시내버스 순환 동선과 더불어 도시 계획 도로를 사용한 시외버스 순환 동선과 주차빌딩 이용 동선 추가하여 계획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성환 버스터미널은 지역 교통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단순히 지역 인프라 회복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지역에 대응한 성환 읍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입선 다음 정류장(情流場)은 여산입니다

원광대학교 | 정은별, 최유림

여산리에 방문했을 때 농촌을 떠올리며 생각한 시골의 정은 볼 수 없었다. 처음 만난 마을 주민들의 모습은 천막으로 겨우 여름 햇빛을 가린 어두운 마당 한켠에서 웅기종기 모여 음식을 나눠 드시고 있는 중이었다. 열악한 공간에서 정을 나누고 계신 모습에 우리는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는 정을 발견하였다. 마을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산의 건강을 다시 되찾고 마을에 정이 흐를 수 있도록 정류장을 계획하였다. 과거와 달리 터미널의 역할은 마을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은 자가용이 없는 이용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개선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터미널을 살리고자 한다. 특별히 여산 터미널의 상황이 악화된 것에는 여산리의 주 기능은 시장 위축이 크게 작용되었다. 또한 시장경제의 영향을 주는 또한 교통 편의이다. 버스 터미널을 개선하여 수요자를 늘림과 동시에 시장의 상황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 터미널의 주요 유저 중 하나가 시장 방문객인 점을 고려해 카트 대여소를 설치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씻을 수 있는 추운 겨울에는 몸을 대필 수 있는 목욕탕과 먹거리를 제공하여 시장과 연계하였다. 더하여 농촌지역의 문제점 중 독거노인 증가 상황과 함께 대두되는 그들의 식생활을 고려하려 로컬푸드 식당 프로그램을 담았다.



입선 함께 살아볼 양?

동명대학교 | 이채은, 박원준, 전도훈

대상지가 위치한 당흥마을과 마천면은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생활 SOC 시설이 부족하여 기존 주민들과 귀농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우리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기존 주민들과 새롭게 이주해오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갑갑한 도시를 떠나 농촌의 시골스러움을 느끼러 오는 러스틱 라이프족,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과 주거시설을 계획하고자 한다.

대상지의 경사 계획을 통해 기존 주민들을 위한 생활 SOC 시설과 러스틱 라이프족, 관광객을 위한 주거공간의 기능적 분절을 이루었으며, 육각형의 허니콤 모듈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 개인으로 시작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대상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류장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활성화시켜 터미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변 마을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터미널의 역할을 위해 자연스럽게 계획된 대합실은 기존 기능에서 주민, 러스틱 라이프족, 관광객 모두가 쉬어가며 소통할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농산품 직판장, 멀티미디어실, 실내 체육관을 계획하여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본질적인 목표로 하였다.

대상지에 입주하게 되는 대상은 기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모집된 사람들은 추후 본인의 의지와 마을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머무를 수도 귀농체험, 러스틱 라이프를 종료할 수 있다.

대상지 계획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조금 더 시골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함양군 마천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안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볼 양?



입선 DO MORE(도모)

원광대학교 | 오영중, 문수영

버스터미널이란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교통시설인 동시에 외부인이 동네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동의 중심에 서있어야 할 터미널이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동네의 분위기에 힘이 없거나, 터미널 자체가 본 구실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약 50분간 배차시간을 가지고 운행되는 버스를 고려하면 이곳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요소들과 저조한 동네 분위기를 반전시켜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담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거리의 한쪽에 아무것도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공백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로 채우자는 목표를 중점으로 설계에 임했고, 한 요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문화시설에 빠질 수 없는 정원을 통해 바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휴과 도로밖에 없는 주변에 자연요소를 채워 넣어 공간의 분위기에 딱딱함을 덜어주려 했다.

DO MORE(도모)라는 이 작품의 명칭은, 주민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요소들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라는 영어적 의미와, 저조한 분위기의 화순읍 변두리 동네에 활기를 제공하여 변화를 '도모'하는 한국적 의미를 중의적으로 섞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과 외부인이 이 새로운 버스터미널을 통해 화순의 이미지를 바꾸고 환경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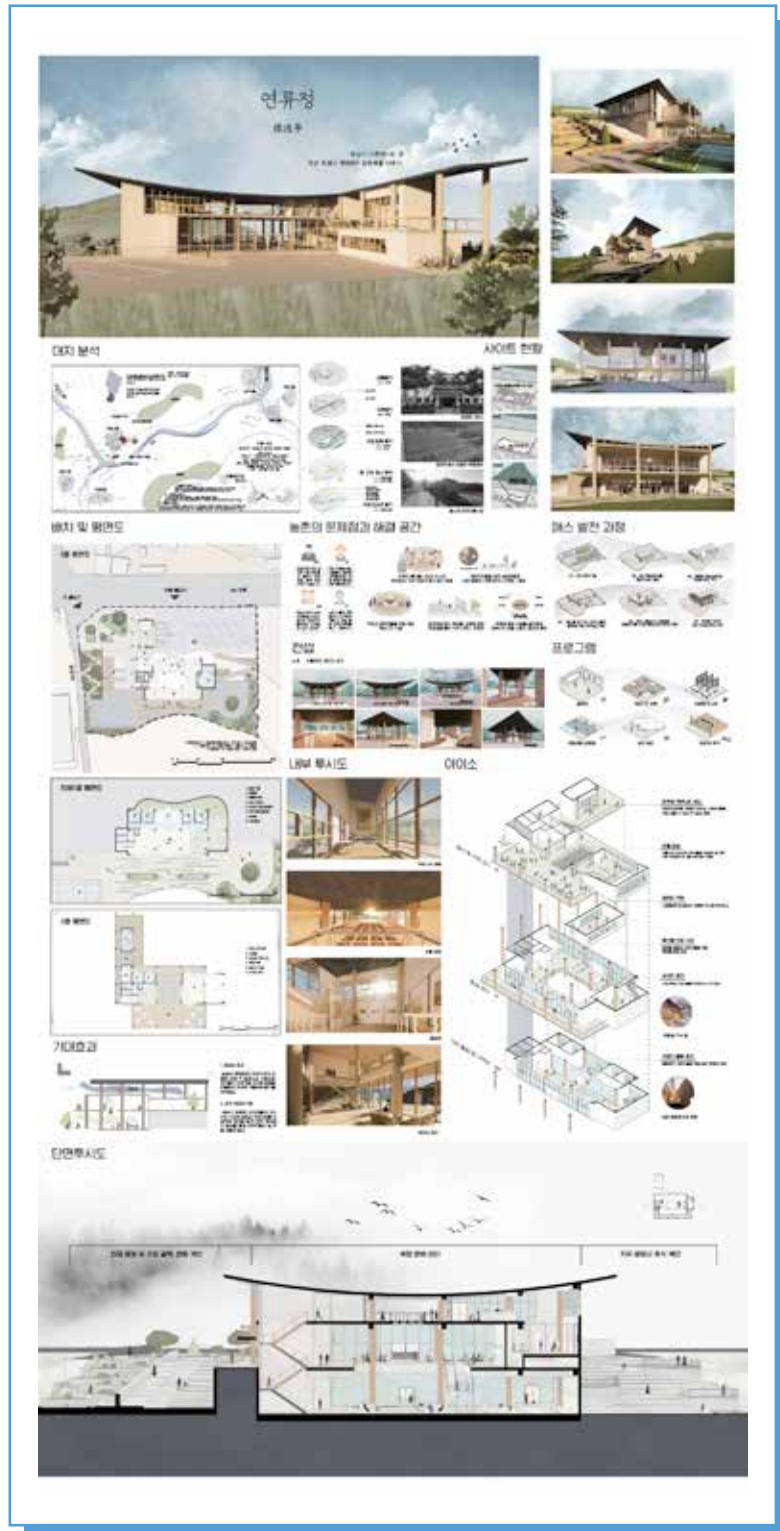
입선 연류정 : 연결하여 흐른다

영남대학교 | 김하늘 / 대구가톨릭대학교 | 김형목

과거 마을에서 정자의 역할은 특별했다. 마을의 일을 상의하고, 마을의 눈발을 둘러볼 수 있는 정자부터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자까지 마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대상지는 함양군 마천면에 위치한다. 마천면 여러 마을의 중심지이며 경치 좋은 강과 산을 조망할 수 있는 대지이다. 이를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실내도 실외도 아닌 우리의 전통적인 제3의 공간인 <누정>을 건축 개념으로 도입하여 마천면의 복합 문화 센터를 디자인했다.

누정이란, 누각과 정자를 결합한 의미로 과거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며 휴식하는 마을 공동체의 공간이다. 누각의 기둥 배치를 통해 기둥 중심으로 사람들이 출입하며 마루 아래로 진입하게 된다. 또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모호하여 누정 안에 위치하지만 실외 공간과 실내 공간이 서로 관입하여 오묘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연류정'을 마주했을 때 부드러운 곡선의 처마가 전체적으로 산줄기의 부담을 줄여주며 처마 아래로 풍경과 만남이 연속되는 공간이 펼쳐진다. 추가로 매스의 실내 유입으로 시선이 직선뿐만 아니라 사선으로도 확장하여 공간의 역동성을 표현했고, 수평의 관입성을 수직 공간 확장으로 변형하여 '연류정'의 공간은 모두 연결되어 흐른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포함한다. 흐르는 공간을 가지는 '연류정'과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민들은 단절된 외지인과 소통하여 마천면에 활기를 불어넣고 흐르는 자연을 풍경으로 한 휴식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마을과 도시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



입선 생기를 불어 넣어 동네의 잃어버린 감 찾기

동명대학교 | 김동규, 이승엽, 이승영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는 다양한 상업 시설의 등장 및 신도심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본래의 진영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곳이다. 또한 대형 마트들의 등장으로 시장에 대한 상권은 줄어들고 있으며, 하루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버스의 진입 경로 및 차량 대기 방법을 보면 보행자와 동선이 겹치는 구간이 다수여서 기존의 매스를 동선 분리해 용이한 곳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지의 축을 가져와 개방적인 공간들을 설계하였다. 또한 기존 버스터미널의 이미지란 많은 사람들의 만남, 헤어짐의 장소이기도 한 유동적인 공간을 재해석하여 하나의 공간에 머무르며 헤어짐의 다음 단계인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선사하며 더불어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인 노년분들의 노후대책 관련하여 연령대 불문하고 모두가 참여 가능한 DIY 공방을 배치하고 그 물품들을 1층 대합실에 전시하여 버스 대기시간을 허비가 아닌 취미생활의 공유이기도 하는 공간을 프로그램화하였고, 침체된 시장 상권에 대해 새롭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여 여래리의 매력 및 분위기, 정겨움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추억을 지역주민에게는 생기를 소상공인에게는 자부심을 선물하는 공간을 설계하였다.

생·동·감이라는 건물을 통해 생기 넘치는, 웃음소리 가득한 진영이 되었으면 한다.



입선 **입실, 문화로 입실**

남서울대학교 | 김민서, 변희진, 송민아

우리는 입실군 주민들의 사회조사를 토대로 그들이 원하는 문화 예술 공간을 입실 버스 터미널 안에 프로그램화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쇠퇴한 '입실' 버스정류장이 복합문화 공간, 만남의 장으로, '입실'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입실군의 연령비를 보면 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계획을 사회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가 및 복지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입실읍의 이슈를 확인한 결과 도시재생 사업에 입실을 이도 지구가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기업의 주 운영자는 '입실읍'의 마을 주민이며 중장년층, 자영업자 등 다양한 주민들을 고용해 구성할 수 있다. 시설주 이용자는 입실 공용버스터미널의 이용자와 마을 주민이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터미널에 부족했던 기본 편의시설을 보충하고 마을에 부족했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수익원은 마을기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 및 유지되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극장, 마켓 공간 대여 등의 공간에서도 수익원이 창출된다.

현재 이 건물은 접근성과 위치성(입실 시장과 유동성(다양한 노선)이 좋은 곳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증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가치 있는 건물인 만큼 기존의 것을 최대한 보존하며(리모델링)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신축) 하고자 한다. 우선 2층 및 불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의 벽체와 기둥을 활용 및 확장하였다. 그리고 계획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증축을 하고 경관이 좋은 쪽(임실천)으로 뷰를 오픈시켰다. 접근성이 좋은 큰 도로 쪽에 신축하고 증축한 건물과 브릿지를 활용하여 연결하였다. 이 설계안은 앞으로 농촌 터미널의 기준과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실'에 '입실'하여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선 사선 복합환승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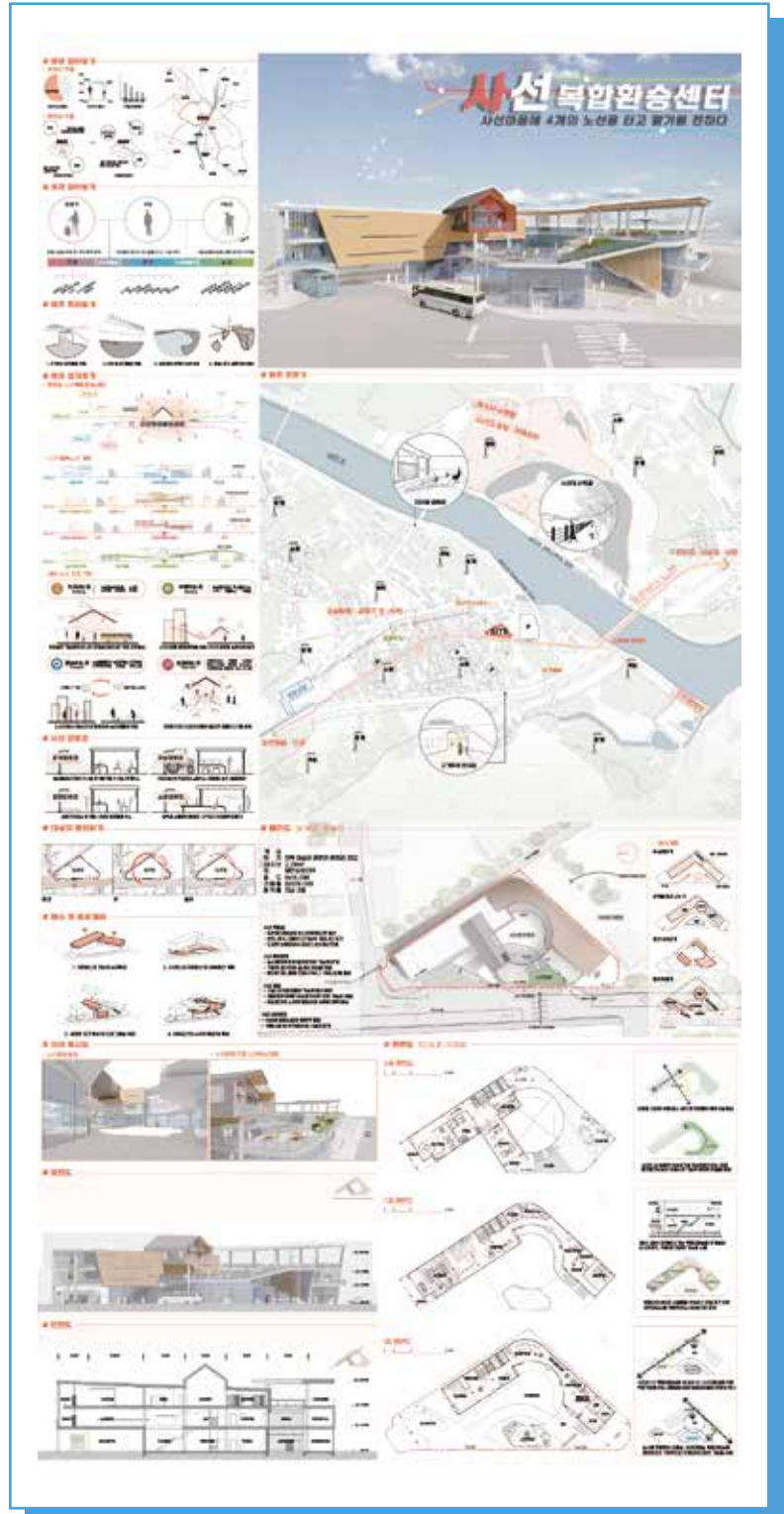
한경대학교 | 김선호, 남민준, 정가현

임실군 관촌 버스터미널을 계획하기로 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자연경관입니다.

농촌이 갖고 있는 큰 무기 중 하나인 자연경관을 버스터미널과 접합시켜 계획한다면 도시의 멋진 초호화 버스터미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버스터미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이유는 관촌의 가능성입니다.

관촌리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민, 귀농, 관광, 문화 등을 노선 프로그램과 컨셉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관촌리의 역할과 버스터미널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피부에 와닿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인에서 귀농인으로 직업, 생활을 변경할 때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환승역처럼 환승을 하기 위해 쉬어가거나 기다리는 곳을 컨셉화시켜 귀농인이 되기 전 관촌에 머무르며 농촌 생활에 적응하고 농업 기술을 터득하여 완전한 귀농인으로 환승(환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을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획된 버스터미널은 귀농인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문화와 복지 생활 SOC 등을 충족시켜 주는데 터미널 안에서 면적 상 부족한 프로그램(시설)들은 마을 안에 스며들어 공실이나 공지,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터미널의 역할이 마을 깊숙이 파고들며 버스터미널의 역할을 복합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입선 여산두레

영남대학교 | 임은지, 윤성영

익산시를 연결하는 지역의 관문이자 구심점이었던 여산면 버스터미널은 극심한 농촌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간선제 거점 터미널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배후 마을까지 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는 이곳에 지역거점으로서 기존 터미널의 기능을 넘어선 마을 복지 및 문화 활동 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입선 BEYOND THE BOUNDARY_모두가 만들어가는 무경계 지역 거점

영남대학교 | 한연정, 김현우, 박지찬

본 계획안은 쇠퇴하는 농촌 버스터미널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축적 요소들을 통해 터미널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터미널을 제안하는 것이 주목표이다.

버스터미널의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문(Gate)과 같은 역할을 하며 공적인 장소로서 이곳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지만 임실 버스터미널은 현재 협소한 건물 시설과 노후화로 인해 승차장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터미널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터미널이 단순히 교통 시설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농촌의 공공시설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농촌과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두가 만들어가는 무경계 지역 거점'을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터미널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 면적을 개선했다. 기존 승차장 배치를 그대로 사용하되, 현대의 선진화된 기술을 통해 승차장 윗부분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넓어진 면적의 공간엔 농촌 지역 내 기초 생활 시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 SOC 인프라 확충 및 귀농·귀촌 주민들을 위한 공간 등 문화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기존의 건물에서 프로그램별로 공간을 구분하였고 부지 내 공개공지와 농협 옆 공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임실 버스터미널이 도심 속의 한 요소로 작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일부가 되며 여러 상호작용을 통하여 임실을 이도리를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것이다.



6.

진행과정

갤러리 / 포스터

갤러리 제1차 심사



갤러리 제2차 심사



갤러리 제3차 심사



갤러리 시상식



포스터 2022 제17회 한국농촌건축대전 포스터



농촌 버스정류장(터미널) 지역거점 공간만들기

참가신청 05. 30(월) - 07. 01(금) 18:00

공모자격

건축과 농촌에 관심있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
 * 개인 또는 팀당 1개 작품만 공모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함
 * 참가 신청 시 제출한 팀원은 변경할 수 없음

신청방법

www.raise.go.kr/ruralarch

공모대상지

읍·면 노후화된 버스정류장(터미널) 대상지 5개소
 또는 다른 노후화된 버스정류장(터미널) 자유대상지 중 선택
 * 시·군 사업예산이 정해져야 환경계획을 갖춘 읍·면 소재지 버스터미널일 것임
 * 대상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사상내역

대 상(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만원
 우수상(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원
 장려상(4)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원
 입선(다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기념품

공모일정

1차 작품접수 07. 04(월) - 07. 06(금) 18:00
 1차 심 사 07. 13(수)
 2차 작품접수 08. 01(월) - 08. 05(금) 18:00
 2차 심 사 08. 18(목)
 3차 작품접수 08. 26(금)
 3차 심 사 08. 26(금)
 수상작 발표 09. 01(목)
 전시 · 시상 09. 27(화) - 10. 03(월)

2022 제17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사무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ruralarch / 운영시간 10:00-18:00
 이 메 일 2022ruralarch@gmail.com
 주 소 대전 서구 갈매로 125 2F
 연 락 처 070-8852-7138, 042-826-7810, 042-610-1940-2

2022 제17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7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2022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편집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전화 044-201-1553, 1558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999-14

I S B N 979-11-86183-45-8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